

고전 시가에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하는 애정 시조들이 있다. 이러한 시조들에서 달은 시적 정황이나, 함께 언급되는 다른 소재들과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몇 가지 기능을 발휘한다. 먼저 애정 시조에서 달은 ㉠임과 이별하는 배경을 형상화하는데 활용된다.

(가)

들 쓰자 비 써나니 인제 가면 언제 오리
만경창과에 가는 듯 도라옵시
밤중만 지국총* 소리에 이긋는 듯 흐여라

* 지국총 : 배에서 노를 젓고 닻을 감는 소리.

(가)의 달은 화자와 임이 달밤에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데 활용되는 소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다음으로 애정 시조에서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다.

(나)

객창(客窓) 돛는 달의 두견이만 우지진다.
옛그제 님 여히고 흐물며 객리*로다
밤?만 난간에 의지흐야 지는 달만

* 객리 : 객지에 있는 동안.

(다)

주렴에 빗친 달과 멀리 오는 옥적(玉笛) 소리
천수(千愁) 만한(萬恨)을 네 어이 도도논다
천리(千里)에 님 이별흐고 잠 못 드러 흐노라

서정시에서는 특정한 소재가 화자의 감정을 촉발하는 경우가 있는데, (나)와 (다)의 달이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다. 즉 (나)와 (다)의 달은 이미 발생한 이별의 상황과 결합되어 화자의 수심을 불러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애정 시조에서 달은 ㉢임이 부재한 상황에서 화자와 임을 이어 주는 기능을 담당한다.

(라)

내 므음 버혀 내여 더 ?을 ?글고져
구만리(九萬里) 장천(長天)의 번드시 걸려 이서
고온 님 계신 고? 가 비취어나 보리라

(마)

달아 붉은 달아 님의 창전(窓前) 빗친 달아
꽃 갓흔 우리 님이 안젓더냐 누엇더냐
저 달아 네 본딴로 일너라 소식이나

달은 문학적 상상력을 바탕으로 화자와 임 사이를 정서적으로 이어 주는 역할을 한다. 달은 서로 다른 공간에 있는 두 사람이 동시에 바라볼 수도 있고, 또 두 사람을 동시에 비취 줄 수도 있다. 그래서 (라)와 (마)의 화자는 임과 떨어져 있지만 임 역시 어느 곳에서든지 달 아래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달을 통해 두 사람은 이어질 수 있다는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우리 문학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연정이라는 주제와 달이라는 소재가 결합한 시가는 수천 년 동안 여러 나라에서 창작되고 향유되었다. 그러므로 우리의 애정 시조와 달을 바라보며 임을 그리워하는 외국의 시가를 비교해서 읽는 활동은 한국 문학의 보편성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우리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달의 작중 기능들은 중국의 당시(唐詩)나 일본의 와카(和歌) 등에서도 그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시대나 나라가 달라도 문화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보편성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1. (가)~(마)의 ‘달’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의 달은 배의 출항과 관련된 것으로, 화자와 임이 헤어지는 시간적 배경을 알려 준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달은 화자가 타향에서 바라보는 것으로, ‘두견이’라는 소재와 정서적으로 연결되어 화자의 정한을 돋우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다)의 달은 화자의 내면을 빗대어 표현한 것으로, ‘옥적’이라는 소재와 어울려 임을 위한 화자의 정성을 강조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라)의 달은 화자의 마음이 투영된 것으로, 서로 떨어져 있는 임과 화자를 이어 주는 매개물로 볼 수 있겠군.
 - ⑤ (마)의 달은 화자가 궁금한 점을 묻는 상대로 설정된 것으로, 임의 사정을 화자에게 알려 줄 수 있는 전달자로 볼 수 있겠군.

2. <보기>의 ㉠ ~ ㉣ 중, (가)~(마)에서 찾을 수 없는 것은?

—<보 기>—

시조는 형식적 제한이 견고해 최소한의 표현으로 최대한의 의사를 전달해야 하고 주관적인 내용에 대해 공감을 얻어야 하므로, 관습적인 발상과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애정 시조에 나타나는 이러한 발상과 표현에는 ㉠이별과 관련하여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는 것, ㉡이별한 후의 심적 고통을 불면의 상황으로 나타내는 것, ㉢수(數)를 통해 감정의 깊이를 드러내는 것, ㉣의인화된 사물에 이별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사물에 임을 빗대어 표현하는 것 등이 있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3.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와 달리 (다)는 연쇄와 반복을 통해 운율을 형성하고 있다.
 - ② (다)와 달리 (나)는 특정한 소재를 활용하여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화자의 시선이 이동되고 있다.
 - ④ (나)와 (다)는 모두 대상과의 재회를 확신하며 고통을 견디는 모습이 나타나 있다.
 - ⑤ (나)와 (다)는 모두 종장의 마지막 구절을 불완전하게 종결하여 시적 여운을 주고 있다.

4. (나)와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 기>—

선생님 : 다음은 당(唐)나라 장악허의 ‘춘강화월야(春江花月夜)’라는 시의 일부입니다. 우리의 애정 시조와 비교해 읽으면 문학의 보편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작품입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달의 세 가지 기능 ㉠ ~ ㉣이, 다음의 시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탐구해 보기 바랍니다.

가련하다 누대 위에서 배회하는 달은
헤어진 이의 경대*를 비추고 있으니
주렴 사이에는 걸어도 사라지지 않고
다듬잇돌 위에는 **털어도 다시 오네**
이제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 서로 들을 길은 없으니
달빛 좇아 흘러가 **임을 비취 보리라**

* 경대 : 거울을 달아 세운 화장대.

약품	특징 및 주의 사항
㉠	이별한 이후의 상실감을 형상화하고 있으므로 이별하는 상황을 형상화하는 데 기여하는 달의 기능은 찾을 수가 없겠군. ①
㉡	화자가 ‘가련하다’라고 탄식하고 있으므로 달은 화자의 정서를 불러일으키는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군. ②
	털어도 다시 오네’라며 달이 사라질까 봐 걱정하는 모습으로 보아 달은 화자의 수심을 유발했다고 할 수 있겠군. ③
㉣	서로 달을 바라보아도’는 이별한 두 사람이 같은 달을 바라본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군. ④
	달빛 좇아’와 ‘임을 비취 보리라’를 통해 이별한 두 사람은 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겠군. ⑤

늡음은 시조에 등장하는 보편적인 화제 중 하나이다. 나이를 먹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의지로 바꿀 수 없는 필연적인 현상이다. 이를 화제로 삼는 시조들에서 화자는 늡음으로 인해 타인과의 관계에서 자존감을 상실하거나 서글퍼하는 태도를 보여 주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늡음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거나 삶을 즐기며 늡음에 대한 서글픔을 잊고자 하는 화자가 작품에 종종 등장하기도 한다.

(가)
나의 미평(未平)흔 뜻을 일월(日月)께 못줍느니
구만 리(九萬里) 장천(長天)에 무스 일 비얏바서
㉠주색(酒色)에 못 슬핀* 이 몸을 수이 늡게 흐느고

* 슬핀: 싫고 미운.

(나)
굴 쟈는 청산이러니 올 쟈 보니 황산이로다
㉡산천도 변흐거든 낸들 아니 늡을쇼냐
㉢두어라 저리 될 인생이니 아니 놀고 어이리

(다)
동풍이 건듯 부러 적설(積雪)을 다 노기니
㉣사면(四面) 청산이 네 얼굴 나노믹라*
귀밧테 히무근 ㉤서리는 녹을 줄을 모른다

* 나노믹라: 나타나는구나.

(가) ~ (다)는 자연물을 끌어들여서 늡음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작품들이다. (가)는 무한히 지속되는 자연물에 인간의 유한한 삶에 대한 안타까움을 토로하며 육흥을 계속 즐기고싶어 하는 화자의 마음을 보여 주고 있고, (나)는 자연의 변화에 인간의 노화를 견주어 표현하고 인생을 즐기므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다)는 화자의 상태를 자연에 비유하였지만 순환하는 자연과는 다른 모습을 통해 늡음에 대한 한탄을 드러내고 있다.

그런데 늡음을 노래하는 작품들 중에는 자연물이 아닌 타자를 동원하여 그에 대한 정서와 태도를 표현한 경우도 있다.

(라)
청춘 소년드라 백발노인 웃지마라
㉥공변된* 하늘아터 낸들 얼마 저머시리
우리도 소년행락(少年行樂)이 어제론듯 흐여라

* 공변된: 치우침이 없는.

(마)
늡기 설은 줄을 모르고나 늡거논
㉦춘광(春光) 덧업서 백발이 절노 난다
그러나 소년썩 밋음은 감(減)홈이* 업세라

* 감홈이: 줄어든 적이.

(바)
세월이 여류(如流)흐니* 백발이 절노 난다
썩고 썩 썩아 점고져 흐논 썩은
북당(北堂)에 유친(有親)흐오시니* 그를 두려 흐노라

* 여류흐니: 물의 흐름과 같으니.

* 유친흐오시니: 어머니께서 계시니.

(라)는 젊고 활력이 넘치는 소년들에게도 세월이 공평하게 흐른다는 것을 자연의 이치로 제시하며 상대방을 설득하는 태도를 나타내고 있고, (마)는 덧없는 세월로 인해 늡어 버린 현재의 육신과 대비되는 소년 시절의 마음을 타자화하여, 늡어서도 소년 시절과 같은 젊은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희망적 태도를 보여 주고 있다. ㉥(바)는 늡음의 문제를 자신이 모시는 어머니와 관련지어 생각하는 화자의 인식을 보여 주는데, 자신보다는 북당에 계신 어머니의 마음을 먼저 생각하며 효를 실천하는 화자의 성숙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이상과 같이, (가) ~ (바)의 시조들은 자연물과 타자를 통해 늡음에 대한 화자의 정서와 태도를 표현하였다. 단, 이때 타자에는 타자화된 자아도 포함된다. 자연물과 타자를 세계로, 화자를 자아로 규정한다면 세계와 자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볼 수 있다.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에 주목한 것이며, 이와 반대로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유사점을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에 주목한 것이다. 그리고 자연물이나 타자를 통해 화자와의 차이점과 유사점을 함께 드러내는 경우는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과 동질성을 모두 고려하는 사고에 바탕을 둔 것으로 볼 수 있다.

5.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유흥을 계속 즐기고 싶으나 인간의 삶이 유한한 것을 안타까워하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노년을 자연의 섭리로 받아들이고 삶을 즐기므로써 서글픔을 달래려는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고 있다.
- ③ ㉢: 순환하는 자연의 원리는 인정하면서도 늙음에 대해 한탄하던 자신을 후회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세월의 흐름은 공평하여 누구나 늙을 수밖에 없다는 자연의 이치에 대한 화자의 생각이 드러나고 있다.
- ⑤ ㉤: 덧없이 흘러가는 세월에 나이가 든 자신의 모습을 인지한 화자의 상황이 드러나고 있다.

6. (가) ~ (마)를 세계와 자아의 관계에 따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가)에서 '일월'과 '장천'은 화자의 짧은 인생과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이질성이 나타나고 있군.
- ② (나)에서 '청산'은 '황산'으로의 변화를 통해 화자와 유사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이 나타나고 있군.
- ③ (다)에서 '적설'은 '동풍'이 불기 전에는 화자와의 유사점이, 불고 난 후에는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 ④ (라)에서 '소년'은 '소년행락'의 시절이 유한하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행락'의 시절을 현재 누리고 있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 ⑤ (마)에서 '막음'은 '소년' 시절과 변함이 없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유사점이, '소년' 시절 이후와 다르다는 점에서 화자와의 차이점이 드러나 세계와 자아의 동질성과 이질성이 함께 나타나고 있군.

7. ㉡와 ㉢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화자의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는 대상이다.
- ② 화자의 의지로 변화시킬 수 있는 대상이다.
- ③ 화자가 세월의 흐름을 확인할 수 있는 대상이다.
- ④ 화자와 타인과의 관계를 개선시켜 주는 대상이다.
- ⑤ 화자에 대한 타인들의 시선을 변하게 만든 대상이다.

8. ㉡를 바탕으로 (바)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세월이 여류하니'를 보면 화자가 나이를 먹게 된 원인을 알 수 있겠군.
- ② '백발이 절노 난다'를 보면 화자가 어머니에 대한 근심 때문에 늙었음을 알 수 있겠군.
- ③ '썩고 쏘 썩아'를 보면 화자가 효를 실천하고자 반복적인 행위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④ '점고져 흐느 쫓은'을 보면 화자가 어머니를 배려하고자 하는 성숙한 태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겠군.
- ⑤ '북당에 유친호오시니'를 보면 화자가 봉양하는 어머니가 계신 장소를 알 수 있겠군.

(가)

풍아(風雅)*의 깊은 뜻을 전하는 이 그가 뉘신고
고조(古調)*를 좋아하나 아는 이 전혀 없네
정성(正聲)*이 하 아득하니 다시 불러 보리라

<제1곡>

위의(威儀)도 거룩하고 예모(禮貌)*도 넓을시고
해학을 좋아하나 가혹함이 되올소냐
아마도 성덕지선(盛德至善)을 못 잊을까 하노라

<제3곡>

좌상(座上)의 손이 있고 술통에 ㉠술이 가득
중심(中心)*을 즐길지니 외모를 위할소냐
덕음(德音)이 밝으시니 곧 반응이 나타나리라

<제4곡>

이 해 저물었으니 아니 놀고 어찌하리
즐김을 좋아하나 거칠음은 말지어다
아마도 직사기우(職思其憂)*야 그가 어진 선비일까 하노라

<제5곡>

두었던 종고금슬(鐘鼓琴瑟)* 날로 즐겨 놀지어다
백년 후 돌아보오 화옥(華屋)*의 누가 들소니
생전에 다 즐기지 못하면 뉘우칠까 하노라

<제6곡>

- 권익룡, 「풍아별곡(風雅別曲)」 -

- * 풍아 : 시문을 짓고 읊는 풍류의 이치.
- * 고조 : 옛 곡조. 여기서는 웅은 소리를 담은 옛 곡조를 뜻함.
- * 정성 : 웅은 소리. 또는 웅은 곡조의 음악.
- * 예모 : 예절에 맞는 몸가짐. * 중심 : 마음속.
- * 직사기우 : 마땅히 그 근심을 생각함.
- * 종고금슬 : 종, 북, 거문고, 비파.
- * 화옥 : 화려하게 지은 집.

(나)

베개 베고 시를 얻어 계속 읊조리자니 枕上得詩吟不輟
마구간의 마른 말도 더욱 길게 우는구나 羸驂伏櫪更長鳴
밤 깊어 초승달은 그림자를 만들고 夜深纖月初生影
고요한 산 찬 솔도 절로 소릴 내누나 山靜寒松自作聲
늙은 종이 재를 털자 등불은 밝아지고 老婢撥灰明兀兀
아내는 ㉡술을 퍼와 내게 권해 따라주네 孺人挹酒勸卿卿
얼큰해져 이불 덮고 다시 높이 누웠자니 醉來捉被還高臥
가슴 속에 불평 있음 깨닫지 못하겠네 未覺胸中有不平

- 박은, 「야와송시유감(夜臥誦詩有感)」 -

(다)

서파삼우(西坡三友)란 나의 벗 이이립이 스스로 지은 별호이다. 이이립은 사람들 중에서 호걸이다. 소년에 육경(六經)에 통하여 우리 유학에 명성을 독차지하였고, 을유년 과거에 급제하여 대간(臺諫)을 역임하고 인물을 선발하는 직무를 맡아 10년을 벼슬길에 있으면서 공로와 이름이 현저하니, 하늘이 낸 재능이라 일컬을 만하다. 기해년 가을에 벼슬에서 물러나 남방으로 돌아와 영천(永川)의 서파리(西坡里)에 살면서 스스로 깃들 서파삼우(西坡三友)라 하니, 세 벗이란 확대경과 빨잔과 쇠칼이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벗과 떨어져 혼자 사니 사람들이 나와 벗하지 않고, 나도 또한 사람들과 사귀려 하지 않았다. 이에 세 물건으로 벗을 삼으니, 확대경으로서 꿰이는 것을 맡게 하고, 빨잔으로 술을 숭상하고, 칼로 생선을 회하여 혼자서 술 붓고 마시니 이내 취하고 배가 불렀다. 생선 나고 쌀 나는 시골에 살면서 태평성대를 구가하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그들을 벗으로 취한 까닭이다. 자네는 이 뜻을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덧붙여 의미를 부여해 주기 바란다.” 했다.

나는 벗이라는 것이 그 마음의 덕을 벗하는 것이니 진실로 벗할

덕이 있다면 사람과 물건을 모두 벗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렇기 때문에 옛 사람이 허다하게 물건으로 벗을 삼았다. 그런데 물건 중에 취하여 벗으로 삼을 것이 이것만이 아니거늘, 반드시 이로써 벗을 삼은 것을 어찌 참으로 입으로 먹고 배를 채우기 위한 계책이라고 하겠는가. 그가 겸손하게 말한 것이다.

내가 보기에 확대경은 불을 취하는 기구이다. 한 번 그 불을 얻어 꺼지지 않게 하면 그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이 없다. 마치 마음의 밝은 덕을 한 번 밝혀 그치지 않게 하면 그것이 다하지 않는 것과 같다. 이 불을 취한 자가 이러한 생각을 가지면 반드시 날로 새롭고 또 새로운 공(功)이 있으리니 어찌 불을 화덕에 피울 뿐이겠는가. 빨잔은 바로 빨로 된 것이니 가운데가 비었고 안으로 향하여 아래로 임하는 길이 있다. 거기에 들어간 것이 맑거나 흐리거나 물건을 포용하는 아량을 품고 있다. 이것을 쓰는 자가 그 덕을 생각하면 반드시 도를 즐기고 선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길 것이다. 어찌 석 잔 술의 의미를 알지 못할 우려가 있겠는가. 칼이라는 것은 쇠이다. 가을의 기운과 부합하니 그 덕은 예리한 데에 있다. 그 예리함을 물체에 쓰매 진평은 고기를 공평하게 잘 나누었고, 정치에 쓰매 여회는 일을 결단력 있게 잘 처리했다. 칼을 잡고 용도를 자세히 살피고 칼을 성급하게 쓰지 않는다면 남들이 어찌 감히 웅은 말을 거역하겠는가. 안으로 스스로 몸을 닦는 방법과 밖으로 백성에 임하는 도리가 실로 이 세 가지에 갖추어져 있다.

공자가 일컬은 ‘유익한 벗[益友]’과 맹자가 논한 바 ‘존경하는 벗[尚友]’이라는 말이 본래 이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이러한 사람이 이러한 벗을 얻었으니 벗을 취하는 법을 안다고 이를 만하다. 그 취하여 쓰는 바가 어찌 작겠는가. 훗날에 예를 갖춘 부름에 응하고 대신의 직책을 받아서, 백관을 진퇴시키고 일세의 인재를 길러내어, 위로 군왕의 치화(治化)를 돕고 아래로 청사(靑史)에 아름다운 이름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이 삼우(三友)에게 힘입지 않았다고 하지 못할 것이다. 아, 대장부가 이 세상에 나서 때를 만나고 못 만나는 것은 운명이다. 그러나 바야흐로 밝은 임금이 위에 있어 천지가 조화를 이루고 만물이 무성하게 이루는 도가 새로우니 함께 나아갈 때이다. 내 어찌 기뻐하지 않겠는가. 마땅히 눈을 씻고 기다리겠노라.

- 유방선, 「서파삼우설(西坡三友說)」 -

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는 대구의 형식을 사용하여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강조하고 있다.
- ② (나)는 과거와 현재의 대비를 통해 시상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 ③ (다)는 사물에 인격을 부여하여 인간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하고 있다.
- ④ (가)와 (나)는 계절감을 드러내는 소재를 통해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와 (다)는 공간적 배경을 묘사하여 인물의 내면 심리를 드러내고 있다.

10. <보기>를 바탕으로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가)는 작가가 간성 지역의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 창작한 작품이다. 그는 당시 불리던 노래들이 사대부에게 적합하지 않으므로 옹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모두 흥겹게 즐기자는 내용 속에 부분적으로 권계의 내용을 담았다. 이 작품에는 현재를 즐기되 그것이 지나쳐서는 안 된다는 ‘낙이불음(樂而不淫)’ 사상과 중심(中心)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는 교훈이 담겨 있다.

- ① ‘고조’를 아는 사람이 없고 ‘정성’이 아득하니 다시 불러 보겠다며 옹은 소리를 담은 노래가 사대부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군.
- ② ‘해학’과 ‘즐김’을 좋아하지만 그것이 남을 괴롭히거나 거칠어서는 안 된다는 절제를 강조하는 낙이불음 사상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좌상’에 손님이 있다는 것과 ‘이 해’가 저물었으니 즐겁게 놀자는 것을 보아 자신을 찾아온 손님들과 현재를 즐기고자 하는군.
- ④ ‘외모’를 위하기보다 ‘중심’을 즐기라는 것을 보아 겉치레보다 마음속을 지키는 것이 사대부의 바람직한 자세라고 생각하는군.
- ⑤ ‘종고금슬’로 날마다 즐겨 노는 것은 ‘화옥’을 꿈꾸는 어리석은 행동이라며 권계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군.

11. (다)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나’는 ‘확대경’의 기능을 바탕으로 ‘이이립’이 밝은 덕을 밝혀서 지닐 수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 ② ‘나’는 벼를 취하는 법을 아는 ‘이이립’이 새로운 때를 만나 나라를 위해 능력을 펼치기를 기대하고 있다.
- ③ ‘나’는 ‘이이립’의 이야기를 듣고, 벼슬에서 물러난 사람들이 나아갈 때를 기다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 ④ ‘나’는 ‘뿔잔’의 생김새를 바탕으로 이를 벗 삼은 ‘이이립’이 모든 것을 포용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 ⑤ ‘나’는 ‘칼’의 특성을 바탕으로 관직에 나아가고자 하는 사람은 공평함과 결단력을 지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12. ㉠을 바탕으로 (바)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우리는 끊임없이 다른 대상과 관계를 맺으며 살아간다. 문학 작품에서 대상을 인지하는 주체는 교감을 통해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한다고 느끼기도 하고, 대상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이때 대상은 사람뿐만 아니라 사물일 수도 있는데, 그 기저에는 모든 만물과 교감이 가능하다는 문학적 상상력이 존재한다

- ① (나)에서 ‘시’를 읊자 ‘말’도 길게 운다고 한 것으로 보아 화자는 대상이 자신의 행동에 반응하고 있다고 느낀 것이겠군.
- ② (나)에서 ‘늪은 중’이 재를 털어 ‘등불’을 밝히는 것은 화자뿐만 아니라 늪은 중도 자연과 교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초승달’이 그림자를 만들고 ‘술’도 소리를 낸다고 한 것은 화자가 자신을 둘러싼 자연과 교감을 하고 있다는 문학적 상상력을 보여주는 것이겠군.
- ④ (다)에서 ‘이이립’이 자신의 별호를 스스로 ‘서파삼우’라고 지은 것으로 보아, ‘이이립’은 사물에 보편적 속성 이상의 의미를 부여했겠군.
- ⑤ (다)에서 ‘나’가 ‘세 벗’의 의미를 ‘이이립’ 대신 설명해 주는 것으로 보아, ‘나’는 ‘이이립’과의 교감을 통해 그가 사물로 벗을 삼은 이유를 알고 있다고 볼 수 있겠군.

13. ㉠과 ㉡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에게 감흥을 자아내는, ㉡은 화자에게 불안감을 주는 소재이다.
- ② ㉠은 화자가 풍류를 즐기게 하는, ㉡은 화자의 근심을 잊게 하는 소재이다.
- ③ ㉠은 화자의 소박한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은 화자의 유유자적하는 삶의 태도를 드러내는 소재이다.
- ④ ㉠과 ㉡은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소재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가 현실에 대응하는 자세를 성찰하도록 이끄는 소재이다.

(가)

태평시절 브린 몸이 물외(物外)에 누어더니

갑 업손 풍월과 임지 업손 강산을

조물이 허락하야 날을 맞겨 브리시니

㉠니라 스양하며 닷토리 뉘 이시리

상주 동쪽 두둑과 낙동강 서쪽 물가에

연하를 헤치고 동천*을 츠즈 드러

죽장망혜(竹杖芒鞋)로 처처(處處)의 도라보니

맑은 연못 깊은 곳의 노프니는 절벽이오

㉡옥 곳튼 여흘은 비단 편 듯 흘러 있다

㉢대(臺)도 듯그러니 정즈도 지으려니

연못도 픔오며 시냇물도 헤오려니

넉 힘 밋는 디로 초옥삼간(草屋三間) 지어 넉니

㉣갓춘 것 부족흔디 경기는 그지업다

(중략)

천 이랑의 맑은 물은 거울을 듯가시며

십 리 어촌은 연수*로 둘렀으니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을

말로 다 이르오며 아니 보아 어이 알꼬

그느ㄱ니와 사시(四時)에 뵈는 경이

피여 디는 듯 푸르러 이우는 듯

온갖 바위 비단된 듯 온 골짜기 구슬된 듯

화공 솜씨를 측량키 어려워라

보아 싫증나며 변화를 가늠홀가

㉤늡고 병들고 게으른 이 성품이

세상 물정도 몰르고 인사(人事)의 우활하여

공명부귀도 구하기에 재주 없어

빈천 기한(飢寒)을 일싱의 겪고 이서

낙천지명*을 예 즘깐 드러더니

산수(山水)에 벽*이 이서 우연히 드러오니

득실도 모르거든 영욕(榮辱)을 어이 알며

시비(是非)를 못 듯거니 출척*을 어이 알꼬

좁은 방이 쓸쓸하고 용슬을 흐뭇 마덧*

작은 방이 적막하고 세상 근심 이저시니

책 속의 성현 말씀 오랜 세월예 사우*시며

천지신명은 마음의 비취시며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 하니

거친 밥 마실 물도 잇든지 못 잇든지

고인 진락(古人眞樂)이 고요함 속의 깊혀서라

- 조우인, 「 매호별곡 」 -

* 동천 : 산천으로 둘러싸인 경치 좋은 곳.

* 연수 : 연기나 안개, 구름 따위에 싸여 뽕얇고 멀리 보이는 나무.

* 낙천지명 : 하늘의 뜻에 순응하여 자기의 처지에 만족함.

* 벽 : 무엇을 치우치게 즐기는 성벽(性癖).

* 출척 : 못된 사람을 내쫓고 착한 사람을 올리어 씀.

* 용슬을 흐뭇 마덧 : 방이 좁아서 무릎을 들일 듯 말 듯.

* 사우 : 스승으로 삼을 만한 벗.

(나)

어떤 화문 잡지에서 「근일꺄다점풍경(近日喫茶店風景)*」이라고 제한 다음과 같은 풍자만화를 본 일이 있다.

스탠드가 놓이고 액(額)이 걸리고 열대 식물의 분(盆)이 있고 한 것이 배경이요, 그 앞으로 세트가 한 벌.

탁(卓)에는 빈 찻잔과 설탕 단지와 재떨이. ㉠그리고서 걸상에 는, 탁 밑에 구두를 가지런히 벗어 놓고, 걸상 앉을개 위에 가 무릎을 단정히 꿇고 두 손을 마주 잡아 무릎 위에 올려놓고, 두 눈을 내려 감고 한 인물이 조용히 앉아 있다.

사족 같으나 원화에 있는 설명을 마저 소개하면

“저 사람 꽤 버티지?”

“참선하나 봐!”

이러한 만화를 구태여 인용하지 않더라도 진작부터 이 두례에도 첨구거사들이 다방인종을 신랄하게 풍자한 썸 재미있는어휘가 많이 있다.

벽화(壁?)!

반만 마신 찻잔에서는 김도 오르지 않고 재떨이에는 쫘초만그득 하니 벌써 두 시간이 되었는지 세 시간이 되었는지, ㉡그두 시간 혹은 세 시간을 벽 밑의 세트에 가서 그런 듯 붙박이로 앉아 있는 포즈가 왜 아니 그림 같을꼬! 벽화란 참으로 천금 값이 나가는 한 마디다.

또 특히 온종일 다방으로 돌아다니면서 물만 먹는대서 금붕어라고도 한다. 역시 재치꾼이 아니고는 지어내기 어려운 명담(名談)이다.

이렇듯 다방인종이 일부 사람에게 (가령 독한 가시는 없으나마) 조롱을 받는 것이 사실은 사실이나 그러한 조롱을때우고 [B] 도 넉넉 남음이 있을 만큼 다방은 전당국과 아울러현대인에게 다시없이 고마운 물건이 아닐 수 없다. 머리와 몸이 피로하기 쉬운 우리 도시이다.

오피스로부터 풀려나오는 길이라도 좋다. 불일로 줄창 돌아다니던 길이라도 좋다. 혹은 아스팔트를 거닐러 나왔던 길이거나 영화를 보고 나오던 길이라도 좋다.

아무튼지 피로를 느낄 때, 길옆 거기 어디 다방을 찾아 들어서면 우선 폭신한 쿠션이 있어서 앉을 자리가 편안하다. 기호에 따라 향긋한 홍차든지 씹쌀한 커피든지 또는 갈증에좋은 청량음료든지, 이편이 청하는 대로 대령을 한다.

명곡이 구비하다. ㉢웬만한 것이면 이편이 귀가 서툴러 못알아들을 지경이다.

하니, 자리가 편안하겠다, 마시는 것이 흥분제였다, 음악이 아름답겠다. 차를 마신 다음에는 담배라도 붙여 물고 유유히20, 30분이고 앉아 있노라면 피로는 자연 견혀진다.

만일 이만한 설비를 제가끔 제 가정에다가 해 놓고 지내자고 해 보아라. ㉣가뜩이나 살림살이가 군색한 조선의 중류 사람으로 땡땡도 못 할* 것이니.

도시예 살자니, 편둥편둥 놀고먹는 사람이 아니고는 제각기 제 감냥에 자작소름한 용무가 많고, 자주 사람을 만나야 한다.

그것을 일일이 찾아다니고 제집에서 기다려서 만나 보고 하자면 여간만 불편한 게 아니다.

㉤한데 다방이면 으레 중심 지대에 있겠다, 향용 다른 불일과 겹서서 나올 수도 있고 지날 길에 잠시 들를 수도 있다. 더구나 전화가 있으니 편리하다. 웬만한 회답이면, 그러므로 안성맞춤인 것이 다방이다.

가령 의식적으로 피로를 쉰다거나 더욱이 다방을 사랑방으로 이용하는 그런 공리적인 타산은 말고라도, 혹시 겨울의 모진 추위에 몸을 웅숭크리고 아스팔트 위로 종종걸음을 치다가 문득 눈에 띄는 대로 노방의 다방 문을 밀치고 들어간다고 하자. 활짝 단 가스 난로 가까이 푸근한 쿠션에 걸어앉아, 잘 끓은 커피 한 잔을 따끈하게 마시면서 아무 것이고 그때 마침 건 명곡 한 곡조를 듣는 안일과 그 맛이란 역시 도회인만이 누릴 수 있는 하나의 낙인 것이요,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 그는 분명 촌맹*이며 가련한 전세기 사람일 것이다.

- 채만식, 「 다방찬 」 -

* 근일꺄다점풍경 : 근래의 다방 풍경.

* 땡땡도 못 할 : 감히 생각조차 못 할.

* 촌맹 : 시골에 사는 사람.

14. (가)의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설의적 표현을 통해 시적 상황에 대한 화자의 생각을 강조하고 있다.
- ② ㉡ : 비유적 표현을 통해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③ ㉢ :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행위를 나타내고 있다.
- ④ ㉣ :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의지를 표출하고 있다.
- ⑤ ㉤ : 열거의 방식을 활용하여 화자 자신에 대해 표현하고 있다.

15. (가)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갑 업슨 풍월과 임직 업슨 강산’은 화자가 떠난 곳으로 ‘동천’과 대조적 성격을 지닌다.
- ② ‘노프니는 절벽이오’는 화자가 ‘맑은 연못 깊은 곳’에서 벗어나 도달하고자 하는 내면적 경지를 드러낸다.
- ③ ‘산수에 벽이 이셔’는 화자가 ‘빈천 기한’을 일생토록 겪으면서 극복하고자 한 문제를 가리킨다.
- ④ ‘타고난 성품을 저버리지 마자’는 ‘책 속의 성현 말씀’, ‘천지신명’과 관련하여 화자가 지향하게 된 태도를 나타낸다.
- ⑤ ‘거친 밥 마실 물’은 ‘작은 방’에서 ‘쓸쓸하’게 지내는 화자가 궁극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을 알려 준다.

16. (나)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 : 의자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사람이 다방의 풍경과 조화를 이룬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다방에서 종일토록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에게 대한 글쓴이의 부러움을 표현하고 있다.
- ③ ㉢ : 다방에서 틀어 주는 음악의 수준이 높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 : 조선의 중류 사람이라면 다방의 모든 설비를 마련할 수 있다는 글쓴이의 생각을 밝히고 있다.
- ⑤ ㉤ : 다방이 중심지에만 위치하고 있는 현실에 대한 글쓴이의 아쉬움을 강조하고 있다.

17. [A],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A]는 자연의 순리에 대한, [B]는 현대인의 모순된 생활 태도에 대한 깨달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A]는 자연 속에서 유유자적하는 생활에 대한, [B]는 도시에서의 바쁜 일상에 대한 그리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③ [A]는 자연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B]는 도시 속 공간과 인간의 부조화에 대한 비판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④ [A]는 자연이 보여 주는 다채로운 모습에 대한, [B]는 다방이 지니고 있는 효용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⑤ [A]는 자연에서 느낀 세월의 흐름에 대한, [B]는 다방을 대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태도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내고 있다.

18.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주체는 공간과 관계를 맺으며 공간 속에서 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돌아본다. 이때 주체가 공간과 관계를 맺는 방식에 따라 ‘3인칭의 공간’과 ‘2인칭의 공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3인칭의 공간은 주체인 ‘나’에게 객관적인 대상으로 인식되는 공간이고, 2인칭의 공간은 ‘나와 너’의 관계를 맺고 있는 공간이다. 3인칭의 공간은 ‘나’와의 관련성이 높아지면 2인칭의 공간으로 변한다. 2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은 주체에게 3인칭의 공간에서의 체험보다 의미 있는 것이 된다.

- ① (가)에서 ‘늑 힘 밋는 덕로 초옥삼간 지어’ 냈다고 한 것은, 주체가 자연을 일상생활의 공간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자연과 밀접한 관계를 맺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② (가)에서 ‘임호정과 어풍대에서 바라본 풍경’에 대해 ‘아니 보아 어이 알소’라고 한 것은, 체험을 통해 자연이 2인칭의 공간이 되었을 때 주체가 그 풍경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음을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③ (나)에서 ‘피로는 자연 견혀진다’라고 한 것은, 주체가 공간에 부여한 의미를 통해 주체에게 ‘다방’이 2인칭 공간임을 나타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④ (가)에서 ‘시비를 못 듯거니’라고 한 것과 (나)에서 ‘그것을 모르고 도시에 살다니’라고 한 것은, 특정 공간에서 품게 된 내면의 욕구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체가 공간에서 자신을 성찰하는 과정을 보여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 ⑤ (가)에서 ‘고인 진락’을 제시한 것과 (나)에서 ‘안일과 그 맛’을 제시한 것은, 공간이 주체와의 관계를 바탕으로 주체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겠군.

(가)

㉠이보소 저 각시님 설운 말씀 그만하오

말씀을 드리하니 설운 줄 다 몰르새

㉡인연인들 한가지며 이별인들 갈을손가

광한전 백옥정의 님을 뵈서 즐기더니

아양을 하였거니 재앙인들 업슬손가

해 다 저문 날의 가는 줄 설워 마소

엇더타 이 내 몸이 견줄 데 전혀 업네

광한전 어디인가 백옥정 내 알던가

원앙침 비취금에 뵈서 본 적 전혀 업네

내 얼굴 이 거동이 무엇으로 님 사랑할가

길쌈을 모르거니 가무(歌舞)야 더 이룰가

엇언지 님 향(向)한 한 조각 이 마음을

하늘이 생기시고 성현이 가르쳐서

정학*이 앞에 잇고 부월*이 뒤에 이서

일백 번 죽고 죽어 빠가 가루가 된 후라도

님 향한 이 마음이 변할손가

나도 일을 가져 남의 업는 것만 얻어

부용화 옷을 짓고 목난으로 주머니 삼아

하늘께 맹세하여 님 섬기랴 원이러니

조물 시기했나 귀신이 훼방했나

내 팔자 그만하니 사람을 원망할가

내 몸의 지은 죄를 모르니 그 더 죄라

나도 모르거니 님이 어이 알겠는가

(중략)

뵈서서 이리하기 각시님 갇던들

설움이 이러하며 생각인들 이리할가

차생의 이리커든 후생을 어이 알고

차라리 식여져 구름이나 되어서

상광 오색*이 님 계신 데 덮였으면

그도 마소 하면 바람이나 되어서

하일 청음*의 님 계신 데 붙어서

그도 마소 하면 일륜명월 되어서

영영 반야에 뚜렷이 비최고저

- 김춘택, 「 별사미인곡 」 -

* 정학 : 죄인을 삶아 죽이는 큰 솥.

* 부월 : 작은 도끼와 큰 도끼.

* 상광 오색 : 다섯 가지의 길한 빛.

* 하일 청음 : 여름날의 맑고 시원한 응달.

(나)

님으람* 회양(淮陽) 금성(金城) 오리나무가 되고 나는 삼사월
췌녕쿨이 되야

그 나무에 그 췌이 납거미 나비 감듯 이리로 춘춘 저리로 춘춘
외오 풀러 올히 감아 열거져 틀어져 밑부터 끝까지 조금도 빈틈
업시 찬찬 굵의 나게 휘휘 감겨 주야 장상(晝夜長常) 뒤트러져 감
겨 잇서

동(冬)첫달 바람비 눈서리를 아무리 맛즌들 ㉢떨어질 줄 이시랴

- 이정보 -

* 님으람 : 임은.

(다)

돌아가신 큰누님의 이름은 아무개로서 반남 박씨이다. 그 동생
지원 중미가 묘지명을 지었으니 다음과 같다.

누님은 나이 열여섯에 덕수 이씨 택모 백규에게 시집가서 딸 하
나 아들 둘을 두었다. 신묘년 구월 초하루에 돌아가 사십삼 세를
살았다. 남편의 선산이 아곡이라 그곳의 경좌* 방향 자리에 장사를

지낼 예정이었다.

그런데 백규가 어진 아내를 잃은 데다가 가난하여 생계를 꾸릴
방도가 없는지라, 아예 어린 자식들과 계집종 하나를 데리고 술과
그릇가지, 옷상자와 짐 보따리를 챙겨서 배를 타고 그 골짜기로
들어가 버렸다. 상여와 함께 일제히 떠나는 새벽, 나는 두모포에서
배 타고 떠나는 그들을 배웅하고 통곡을 하고서 돌아섰다. 아아!
누님이 시집가는 날 새벽에 몸단장하던 모습이 흡사 어제 일만 같
구나. ㉤나는 그때 겨우 여덟 살이라, 벌렁 드러누워 발버둥을 치
면서 새신랑이 말을 더듬으며 짐잔 빼는 말투를 흉내 냈다. 누님
은 부끄러워하다가 그만 빛을 떨어뜨려 내 이마를 때렸다. 나는
화가 나서 울음을 터트리고는 분가루에 먹을 뒤섞고 거울에 침을
뱉어 문질러 댔다. 그러자 누님은 옥으로 만든 오리와 금으로 만
든 별 노리개를 꺼내어 주면서 울음을 그치라고 나를 달랬다. 지
금으로부터 스물여덟 해 전 일이다.

강가에 말을 세우고 저 멀리 바라보니 붉은 명정*이 바람에 펄
럭이고 돛대는 비스듬히 미끄러지는데, 강굽이에 이르러 나무를
돈 뒤에는 모습을 감추어 더는 보이지 않았다. 강가 멀리 앓은 산
은 시집가던 날 누님의 쪽 지은 머리처럼 검푸르고, 강물 빛은 그
날의 거울처럼 보이며, 새벽달은 누님의 눈썹처럼 보였다. 빛을 떨
어뜨리던 그날의 일을 눈물 속에서 생각하니 유독 어릴 적 일만이
또렷또렷하게 떠오른다. 그때는 또 그렇게도 즐거운 일이 많았고,
세월은 길게만 느껴졌다. 그사이에는 늘 이별과 환난에 시달려야
했고 빈궁에 시름겨워했다. 그 일들이 꿈속인 양 황홀하게 스쳐
지나간다. ㉥형제로 지낸 날들은 어찌도 그렇게 짧았던 말인가?

떠나는 이 간곡하게 뒷기약을 남기기에

보내는 이 도리어 눈물로 옷깃을 적시네.

조각배는 이제 가면 언제나 돌아올까?

보내는 이 쓸쓸히 강 길 따라 돌아서네.

- 박지원, 「 백자증정부인박씨묘지명 」 -

* 경좌 : 서남쪽을 등진 방향.

* 명정 : 죽은 사람의 관직과 성씨 따위를 적은 기.

19.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과거의 인연을 끊고 새로운 인연을 찾으려 하는 삶의 방식을 보여 주고 있다.
 - ② (나)에서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새로운 목표를 지향하는 상황을 강조하고 있다.
 - ③ (다)에서는 인생의 허무함을 극복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 ④ (가), (다)에서는 모두 특정한 대상을 떠올리며 그리워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 (나), (다)에서는 모두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나타내고 있다.

20. ㉠ ~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화자가 상대방을 부르며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 화자는 인연이나 이별의 상황이 각자 다르다고 여기고 있다.
 - ③ ㉢ : 화자가 임에 대한 자신의 태도가 변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 글쓴이가 자신의 나이와 행위를 통해 과거의 철없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글쓴이가 과거 사건을 요약하며 좌절감을 완화하고 있다.

21. [A]에 나타난 화자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자신이 과거에 임과 만나게 된 이유를 상세히 밝히고 있다.
 - ② 자신이 아무런 죄 없이 참소를 당했다고 임에게 호소하고 있다.
 - ③ 자신이 정성을 담아 만든 물건을 임에게 전달한 후 안도하고 있다.
 - ④ 자신의 행동과 재주가 임의 사랑을 받기에는 부족하다고 한탄하고 있다.
 - ⑤ 자신의 풍류 의식과 성현의 가르침 사이에서 고뇌하는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22.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문학에서는 상상력을 발휘하여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 다른 존재로 거듭 나기를 바라는 심정을 형상화하기도 한다. 고전 시가에서 변신에 대한 소망은 주로 (가)와 같이 죽어서 다른 존재로 다시 태어나는 ‘전생’이나, (나)와 같이 죽지 않고 다른 존재로 몸을 바꾸는 ‘전신’ 등으로 구현된다. 그리고 변신의 양상에는 혼자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상대방과 함께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다른 인간으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아니면 인간이 아닌 다른 존재로 변신하기를 바라는가 등이 있다.

- ① (가)의 ‘구름’은 현실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 화자가 죽어서 다시 태어나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② (나)의 ‘삼사월 쉼넝쿨’은 화자가 상상력을 발휘해 몸을 바꾸기를 바라는 존재로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그 나무에 그 쉼이 납거미 나비 감듯’은 임이 자신과 함께 변신하여 서로의 관계가 굳건하게 이어지기를 바라는 화자의 소망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해 다 저문 날’과 (나)의 ‘동셋달’은 모두 화자가 임과 헤어지는 시간으로, 화자가 변신을 바라는 계기로 작용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바람’은 화자 자신의 변신을, (나)의 ‘오리나무’는 임의 변신을 바라는 화자의 심정을 형상화한 것으로 볼 수 있겠군.

23. (다)의 맥락을 고려하여 [B]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글쓴이는 [B]에서 누님과의 약속을 어긴 이유를 밝히고 있다.
 - ② 글쓴이가 [B]에서 제시한 시적 배경은 새벽녘 강가로 볼 수 있다.
 - ③ 글쓴이는 [B]를 통해 사별의 정서와 관련된 구체적인 행동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글쓴이는 [B]에서 상여를 실은 조각배가 떠난 후 돌아서는 자신의 모습을 제시하고 있다.
 - ⑤ 글쓴이는 [B]에서 스스로 묻는 방식으로 더 이상 누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24.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선생님 : 남성 문인들이 쓴 조선 시대 여성의 묘지명은 몇 가지 서술상의 관행이 있었습니다. 고인의 이름을 명시하지 않고, 남편의 뜻을 따르는 수동적 언행을 제시하며, 고인의 행적 중 살림을 잘해 사후에도 가족들을 풍족하게 지낼 수 있게 하는 일처럼 가문에 공헌한 것만을 골라서 칭송했습니다. 그러나 박지원은 묘지명이 단순히 가문을 자랑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고인과의 일화 등을 통해 개인적인 정과 추억을 담아 아름답게 묘사하는 글이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를 참고하여 (다)에서 당대의 상투적인 서술상의 관행에서 탈피한 내용을 찾아 봅시다.

학생 1 : 누님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혀 가문에 대한 자랑과 누님에 대한 애뜻한 정을 동시에 드러냈습니다. …………… ㉠

학생 2 : 누님의 남편이 생계가 어려워 가족을 데리고 이주하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

학생 3 : 누님이 화가 난 남동생을 달래기 위해 노리개를 꺼낸 일화를 소개했습니다. …………… ㉢

학생 4 : 시집가던 날의 누님의 모습을 글쓴이가 회상하며 누님에 대한 개인적인 추억을 표현했습니다. …………… ㉣

- ① ㉠, ㉡
- ② ㉠, ㉢
- ③ ㉡, ㉣
- ④ ㉠, ㉢, ㉣
- ⑤ ㉡, ㉢, ㉣

(가)

풍설이 잠간 자고 정제가 고요커늘
현창을 널니 열고 병안(病眼)을 높이 드니
만리 건곤의 무한한 청산이
엇그제 소년으로 백두옹(白頭翁)이 되어세라

(중략)

설산(雪山) 진면목을 여가와 다 보노라
어와 조화옹이 변화도 그지없구나
억만 창생을 사치케 하닷말가
집마다 경실*이오 섬마다 옥계(玉階)로새
내 집도 찬란하니 거처는 좋다마는
선비에게 과분하니 심중이 불안하다
만가 천향*의 경요*가 낭자하대
습유*를 아니하니 풍속도 좋을시고
수레바퀴 흰 띠는 쌍으로 비껴가고
말발*의 은잔(려盞)은 개개히 두렷하니
공장의 성녕인가 천하의 기제로새
공계 위에 새 자취는 야사 황대의
창힐서가 완전한 듯 석양 한천의
날아드는 저 가마괴 눈빛을 더러일샤
천지만물 중의 네 홀노 유(類)다르니
소의 호상*으로 개복(改服)들 하야스라
정변 대석은 백호가 준좌하니
이비장* 보듯더면 오호궁을 다랗랏다
고목의 늙은 가지 개개의 옥룡일새
운우(雲별)를 언제 얻어 벽공의 오르려니
네 등을 잠간 빌어 월중계*를 꺾고자나
유흥이 전심하니* 질병을 다 잊을다
학창의(鶴氅衣)를 잠간 입고 청려장을 높이 짚어
바닥 없슨 신을 신고 설리(雪裏)의 배회하니
맹영이 잊도던들 날도 아니 신선이라 할 거이고
- 홍계영, 「희설」 -

- * 경실: 옥으로 만든 집.
- * 만가 천향: 온 거리.
- * 경요: 옥구슬.
- * 습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주움.
- * 말발: 말발굽.
- * 소의 호상: 희고 깨끗한 옷.
- * 이비장: 한나라 때 흉노를 토벌한 장군.
- * 월중계: 달나라의 계수나무.
- * 전심하니: 더욱 깊으니.

(나)

율령천(栗嶺川) 긴 감소*에 뉘대 들고 흘건다가*
아침밥 종이 먹고 긴 조오름 내었으니
세상의 번우한* 벗이 이 뜻 알까 하노라

<제2수>

율령천 백구(白鷗)들이 나더러 이른 말이
인간 시비(是非)를 모르고 늙으소서
우리는 한 말도 아니되 겹다 세다 하네다

<제14수>

대산 상상봉에 내 혼자 올라와서
에에쳐* 실컷 울고 생각느니 임이로다
평생에 위군부애정*이야 일각인들 잊으리까

<제20수>

- 강복중, 「수월정청홍가」 -

- * 감소: 물 웅덩이.
- * 흘건다가: 흠어 건다가.
- * 번우한: 번거롭고 걱정이 많은.
- * 에에쳐: 소리쳐.
- * 위군부애정: 임금과 아버지를 위한 서글픈 감정.

[A]

25.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후렴구를 활용하여 음악적 효과를 드러내고 있다.
- ② 연쇄의 방식을 통해 대상의 속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③ 직유의 방식을 사용하여 대상의 가치를 나타내고 있다.
- ④ 상승과 하강 이미지 반복을 통해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화자의 내면을 드러내고 있다.

26. 가마괴와 백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경외감을 가지고 바라보는 대상이다.
- ② ‘가마괴’와 ‘백구’는 모두 화자가 과거의 사건을 회고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③ ‘가마괴’는 화자가 위로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공감하는 대상이다.
- ④ ‘가마괴’는 화자가 권고의 말을 건네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는 대상이다.
- ⑤ ‘가마괴’는 화자가 속한 심미적 세계를 위협하는 대상이고, ‘백구’는 화자가 속한 탈속적 세계를 폄하하는 대상이다.

※ 다음을 참고하여 25번과 26번의 두 물음에 답하시오.

선생님: 가사와 시조 작품에는 화자가 자신의 처지나 이념을 바탕으로 자연을 감상하면서 자신의 정서를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에서는 병중의 화자가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서 초월적 세계를 상상하며 고통을 초극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한편 (나)에서는 사대부인 화자가 강호에서 생활하면서도 세상에 대한 번민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드러납니다. 이러한 화자의 상황을 고려해 각 작품 속에 자연의 의미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27.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학생 1: (가)의 ‘헌창’을 열고 ‘백두옹’이 된 ‘청산’의 변화를 인지하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바라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감상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② 학생 2: (나)의 ‘울령천’에서 지내며 ‘아침밥’을 먹은 후 졸음이 나온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 시간을 보내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일상적 생활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③ 학생 3: (가)의 ‘늪은 가지’에 쌓인 눈을 보고 ‘유홍’이 깊어진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에서 감흥을 느끼는, (나)의 ‘긴 감소’에 ‘뉘대’를 들고 홀어 걷는 상황을 통해 강호를 즐기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모두 화자의 흥취를 유발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④ 학생 4: (가)의 ‘옥룡’을 떠올리며 ‘질병’을 잊은 것 같다는 상황을 통해 설경을 보고 아픔을 떨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고통을 잊는, (나)의 ‘울령천’에서 ‘세상의 번우한 빗’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강호에서도 세상을 걱정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의 번민이 심화되는 공간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 ⑤ 학생 5: (가)의 ‘설리’에서 ‘신선’을 떠올리는 상황을 통해 눈을 보며 초월적 세계를 연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신선을 동경하는 이념이 드러나는, (나)의 ‘대산 상상봉’에서 ‘위군 부애정’을 생각하는 상황을 통해 산봉우리에서 선비의 본분을 생각하는 화자의 모습이 드러나 자연은 화자가 지닌 사대부로서의 이념이 드러나는 대상으로 나타나고 있어요.

28. ㉠을 고려하여 [A]에 대한 영상시를 제작할 때 학생들이 협의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눈으로 덮인 화자의 집이 영롱하게 빛나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② 눈이 온 거리에서 풍속에 따라 구슬을 줍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③ 마을의 집들과 거리가 하얀 눈으로 덮여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④ 눈이 쌓인 길 위로 말발굽의 흔적이 뚜렷하게 남아 있는 장면을 보여 주면 좋겠어.
- ⑤ 눈이 내린 거리에 나란히 남겨진 수레바퀴 자국을 바라보고 있는 화자의 모습을 보여 주면 좋겠어.

(가)
청강(淸江) 녹초변(綠草邊)의 소 먹이는 아이들이
석양에 흥이 겨워 피리를 비껴 부니
물 아래 잠긴 용이 잠을 깨어 일어날 듯
안개 기운에 나온 학이 제 집을 버리고
반공(半空)에 솟아 뜰 듯
소선(蘇仙) 적벽(赤壁)*은 가을 칠월(秋七月)이 좋다 하되
팔월 보름달을 모두 어찌 칭찬하는고
고운 구름 흩어지고 물결이 잔잔할 때
하늘에 돋은 달이 술 위에 걸렸거든
달을 잡으려다 물에 빠진 적이 있는 적선(謫仙)이 야단스럽구나
공산(空山)에 쌓인 잎을 삭풍(朔風)이 거둬 불어
매구름 거느리고 눈조차 몰아오니
천공(天空)이 호사로워 옥으로 꽃을 지어
만수(萬樹) 천림(千林)을 꾸며 내는구나
앞 여울 가려 열어 독목교(獨木橋) 비졌는데
막대 뎌 늙은 중이 어느 절로 가는 건가
산옹(山翁)의 이 ㉠부귀(富貴)를 남에게 전하지 마오
경요굴(瓊瑤窟) 은세계(隱世界)를 찾을 이 있을세라
산중에 벗이 없어 한기(漢紀)*를 쌓아 두고
만고 인물을 거슬러 헤아리니
성현도 많거니와 호걸도 많고 많다
하늘 삼기실 제 곧 무심할까마는
어찌하여 시운(時運)이 일락배락* 하였는가
모를 일도 많거니와 애달픔도 그지없다
기산(箕山)의 **늙은 고불** 귀는 어찌 씻었던가*
박 소리 핑계하고* **조장(操狀)***이 가장 높다
인심이 낮 같아서 볼수록 새롭거늘
세사(世事)는 **구름**이라 험하기도 험하구나
옛그제 빛은 **술**이 얼마큼 익었나니
잡거니 밀거니 실컷 기울이니
마음에 맺힌 시름 적게나 하리로다

[A]

[B]

[C]

[D]

[E]

- 정철, 「정산별곡(星山別曲)」 -

* 소선 적벽 : 송나라 문인 소동파가 지은 적벽부.
* 한기 : 책.
* 일락배락 : 흥했다가 망했다가.
* 기산의 ~ 씻었던가 : 기산에 숨어 살던 허유가 임금의 자리를 제안받았을 때, 이를 거절하면서 그 말을 들은 자신의 귀를 씻었다는 고사.
* 박 소리 핑계하고 : 표주박 하나도 귀찮다면서 허유가 핑계하고.
* 조장 : 기개 있는 품행.

(나)
㉠부귀(富貴)라 구(求)치 말고 빈천(貧賤)이라 염(厭)치 마라
인생 백 년(百年)이 한가(閑暇)할사 이내 것이
백구(白鷗)야 날지 마라 너와 **망기(忘機)***하오리라

<제1곡>

서산(西山)에 해 저 간다 고깃배 뗏단 말가
죽간(竹竿)을 둘러메고 십 리 장사(十里長沙) 내려가니
연화(煙花) 수삼(數三) **어촌(漁村)**이 **무릉(武陵)**인가 하노라

<제6곡>

- 권구, 「병산육곡(屏山六曲)」 -

* 망기 : 속세의 일이나 욕심을 잊음.

(다)
윤상군이 처음에 곤강 남쪽에 집터를 마련했다. 집터 동편과 서
편에 밤나무 숲이 울창하였으므로 거기에다가 정자를 짓고 **율정(栗
亭)**이라고 이름했다. 그 후에 또 조금 서편으로 가서 새로 집을 샀
는데 밤나무 숲이 더욱 무성했다. 성안에 있는 집에서는 밤나무를
심는 사람이 적은데, 윤공은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 있는 곳을
선택했다.
그는 일찍이 나에게 말했다.
“봄에는 잎이 무성하지 않아 가지 사이가 성글어서 그 사이로

꽃이 서로 비치고, 여름이면 잎이 우거져서 그늘에서 놀 수가
있으며, 가을에는 밤이 먹을 만하며, 겨울이면 밤송이를 모아
아궁이에 불을 댈 수가 있다. 그래서 나는 밤나무를 좋아한
다.”

나는 말한다.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
는 것은, 성질이 같은 것끼리 서로 찾아가는 것이니 이치에 있어서
반드시 그러한 것이다. 대개 그 숭상하는 것이 같으면 물건이나 내
가 다를 것이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다. 왜 그런가 하면 하
늘과 땅 사이에 나는 풀이나 나무가 모두 한 기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뿌리와 싹과 꽃과 열매가 어려운 것, 쉬운 것, 일찍 되는
것, 늦게 되는 것 등 가지각색인데, 오직 이 밤나무는 모든 나무 가
운데서 가장 늦게 나며, 재배하기도 어렵고 기르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린다.

그러나 자라기만 하면 쉽게 튼튼해지며,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준다. 꽃이 매우 늦게 피지만
피기만 하면 곧 흐드러지며, 열매가 매우 늦게 맺히지만 맺히기만
하면 곧 수확할 수 있다. 그러니 이 밤나무는 모든 사물에 공통되
는 차고 이지러지고 줄어들과 보태는 이치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
이다.

윤공은 나와 같은 해에 과거에 합격했는데 그때의 나이가 30여
세였다. 그러다가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비로소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갔으므로 사람들은 모두가 늦었다고 하였으나, 공은 직무에 더
욱 조심하며 충실히 했다. 그러다가 임금의 인정을 받아 등용되었
는데,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
었으니, 이것은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았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간
밤나무와 같다. 그 기틀을 세우는 것이 처음에는 어려웠으나 그 성
취하는 것이 뒤에는 쉬웠으니, 이것은 밤나무의 꽃과 열매의 성질
과 같은 바가 있다.

나는 그것을 이치로 설명하려 한다. 대개 식물의 씨앗이 흙에서
싹틀 때 깊으면 싹이 더디 터진다. 꼬투리가 터지면 곧 눈이 트고,
눈이 트면 가지가 생겨서 반드시 줄기를 이룬다. 샘물이 웅덩이에
차게 되면 그것이 조금씩 흘러나오게 된다. 그 흐르는 것이 멈추게
되면 물이 고이고, 고이면 못이 되었다가 반드시 바다에까지 도달
한다. 그러므로 그 느린 것은 장차 빨리 되려는 것이요, 멈추는 것
은 장차 끝까지 도달하려는 것이니, 곧 모자란 것은 채울 수 있으
며 부족한 것은 보탬 수 있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한 가지 사
물에 대해서도 이것을 실증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여기에서 사람이 숭상하는 바를 관찰하건대, 곧 불을 숭상
하면 불을 닦고 물을 숭상하면 물을 닦으니 나와 숭상하는 사물과
차이가 없다. 따라서 그대가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은 밤나무의
생장함과 같으며, 밤을 수확하여 간직함은 그대의 은퇴하는 것과
같다. 그 생장함에는 세상을 유익하게 하는 바가 있으며, 그 간직함
에는 자신의 양생의 작용이 있다. 이에 나는 이 정자에 대하여 그
이치를 들어 글을 짓는다.

- 백문보, 「율정설(栗亭說)」 -

29.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시간적 배경이 드러나는 표현을 사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반어적 표현을 통해 현실에 대응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근경에서 원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대상의 특성을 포착하고 있다.
 - ④ (가), (나), (다) 모두 색채어를 활용하여 대상을 생동감 있게 묘사하고 있다.
 - ⑤ (가), (나), (다) 모두 공간의 이동을 통해 대상이 변화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30.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 : ‘소 먹이는 아이들’의 피리 소리를 듣고 ‘용’과 ‘학’을 떠올리며 강변에서의 흥취를 노래하고 있다.
 - ② [B] : ‘팔월 보름달’을 ‘소선 적벽’의 내용과 비교하며 달과 소나무가 어우러진 풍경에서 느끼는 감흥을 드러내고 있다.
 - ③ [C] : ‘천공’이 ‘옥’으로 꽃을 만들어 ‘만수 천림’을 꾸민 것 같다고 표현하며 눈 내린 산의 아름다움을 예찬하고 있다.
 - ④ [D] : ‘늙은 중’이 가 버린 것에 아쉬워하며 ‘은세계’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바라고 있다.
 - ⑤ [E] : ‘성현’과 ‘호걸’을 생각하며 ‘시운’이 ‘일락배락’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있다.

31. ㉠과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과 달리 과거를 극복하게 하는 대상이다.
 - ② ㉡은 ㉠과 달리 화자가 추구하는 가치와 거리가 먼 대상이다.
 - ③ ㉠은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은 갈등을 심화하는 계기가 되는 대상이다.
 - ④ ㉠은 화자의 체념적 태도를, ㉡은 화자의 달관적 태도를 드러내는 대상이다.
 - ⑤ ㉠과 ㉡은 모두 화자에게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하는 대상이다.

32. 다음은 (다)에 대한 <학습 활동>이다. ㉠~㉡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학습 활동 >

활동 과제 : ‘나’가 말한 내용이 윤상군의 삶과 어떻게 연관될 수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나’가 말한 내용		활동 결과
불이 마른 것에 잘 붙고 물이 축축한 곳으로 흐르는 것.	⇒	㉠
밤나무는 늦게 나고, 기르는 데도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	⇒	㉡
잎이 매우 늦게 돋지만, 돋기만 하면 곧 그늘을 쉽게 만들어 주는 것.	⇒	㉢
별로 손질을 하지 않아왔는데도 무성하게 뻗어 나가는 것.	⇒	㉣
밤나무의 성장함과 밤을 수확하여 간직하는 것.	⇒	㉤

- ① ㉠ : 윤상군이 집을 구할 때마다 밤나무가 있는 곳을 선택한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② ㉡ : 윤상군이 나이가 40세가 넘어서야 처음으로 벼슬에 나아간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③ ㉢ : 늦게 벼슬에 오르기까지 윤상군이 직무에 더욱 조심하며 충실히 임했다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④ ㉣ : 등용된 윤상군이 하루 동안에 아홉 번 자리를 옮겨 대신의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과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 ⑤ ㉤ : 윤상군이 출세하여 영화롭게 된 것과 은퇴하는 것에 연관 지어 볼 수 있겠군.

33.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작가는 화자나 인물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바라보는 자신의 생각을 언어로 형상화하여 표현하기 때문에 문학 작품을 읽는 것은 곧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작가가 화자나 인물을 어떻게 그리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은 문학 작품 속에 담겨 있는 작가의 생각을 이해하는 방법이 된다.

- ① (가)에서 고사를 인용하며 ‘늙은 고불’을 ‘조장’이 높은 인물로 보고 있는 화자를 통해 바람직한 삶의 자세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세상의 일이 ‘구름’처럼 험하다면서 ‘술’로 ‘시름’을 잊겠다고 말하는 화자를 통해 속세를 부정적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③ (나)에서 ‘백구’에게 날지 말라고 말하며 함께 ‘망기’하고 싶다는 화자를 통해 자연물을 몰아일체의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군.
- ④ (나)에서 삶의 터전인 ‘어촌’을 ‘무릉’에 비유하며 생활에 대한 만족감을 느끼고 있는 화자를 통해 일상의 공간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 ⑤ (다)에서 정자의 이름을 ‘율정’이라 짓고 늘 자신의 행동을 경계하였음에도 등용이 늦었던 인물을 통해 당시의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군.

(가)

하룻밤 ㉠찬바람에 눈이 왔나 서리 왔나
어찌하여 온 세상이 백옥경이 되었는가
동창이 다 밝거늘 수정럼을 걷어 놓고
거문고 비껴 안아 ㉡봉황곡을 연주하니
소리마다 그윽히 맑아 태공에 들어가니
파사 ㉢계수나무 아래 옥토끼도 돌아본다
유리 호박주를 가득 부어 권하니
유정한 항아도 잔 밑에 비치었다
청광을 머금으니 폐부에 흘러들어
호호한 흥중이 아니 비친 데가 없다
옷가슴 헤쳐 내어 광한전에 돌아앉아
마음에 먹은 뜻을 다 아뢰려 하였더니
심술궂은 뜯구름이 어디서 와 가리는가
천지가 깜깜하여 백물을 다 못 보니
상하 사방에 갈 길을 모르겠네
먼 봉우리 반쪽 끝에 옛 빛이 비치는 듯
구름 사이로 나왔더니 ㉣떼구름 미쳐 나니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
중문을 닫아 놓고 뜰가에 따로 서서
매화 한 가지 계수나무 그림자인가 돌아보니
처량한 암향이 나를 좇아 시름한다
성긴 발을 드리우고 동방에 혼자 앉아
㉤금작경* 닭아 내어 벽 위에 걸어 두니
제 몸만 밝히고 남 비출 줄 모르도다
비단 부채로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견고자
푸른 대나무로 천 길의 비를 매어 저 구름 다 쓸고자
㉥장공은 만 리요 이 몸은 진토니
슬슬한 이내 뜻이 생각하니 허사로다
가뜩이나 시름 많은데 긴 밤은 어떠한가
전전반측하여 다시금 생각하니
영허 소장*이 천지에 무궁하니
풍운이 변화한들 ㉦본색이 어디 가리
우리도 단심(丹心)을 지키어 명월 불 날 기다리노라

- 최현, 「명월음」 -

* 금작경 : 황금 까치를 조각한 거울.

* 영허 소장 : 달이 찼다가 기울고, 없어졌다가 다시 생김.

(나)

무정히 서 있는 바위 유정하여 보이는구나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어렵거늘
만고에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구나 <제1수>

강가에 우뚝 서니 쳐다볼수록 더욱 높다
바람 서리에 불변하니 뚫을수록 더욱 굳다
사람도 이 바위 같으면 대장부인가 하노라 <제2수>

한마디 말도 없는 바위 사귄 일도 없지마는
고모 진태*를 벗 삼아 앉았으니
세상에 이익되는 세 벗을 사귄 줄 모르노라 <제3수>

먹줄 없이 생긴 바위 어느 법도를 알라마는
높고도 곧으니 귀하게 보이는구나
애닦다 가히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 <제4수>

탁연 직립*하니 본받음 직하다마는
구름 깊은 골짜기에 알 사람 있어 찾아오랴

힘을 다해 오르면 기이한 구경거리 많으니라 <제5수>

- 박인로, 「입암이십구곡」 -

* 최령한 오인도 직립 불의 : 가장 신령스런 우리도 의지하지 않고 뚝뚝이 서기.

* 고모 진태 : 옛 그대로의 모습.

* 탁연 직립 : 높이 곧게 섬.

(다)

어린 염소 세 마리가 달달거리며 보도 위로 주인을 따라간다.
염소는 다리가 짧다. 주인이 느릿느릿 놀 양으로 쇠 걸음을 걸으면 염소는 **종종걸음**으로 빨리 따라가야 한다. 두 마리는 긴 줄로 목을 매어 주인의 뒷짐 진 손에 쥐여 가고 한 마리는 목도 안 매고 따로 떨어져 있건만 서로 떨어질세라 열심히 따라간다. 마치 어린애들이 엄마를 놓칠까 봐, 혹은 길을 잃을까 봐 부지런히 따라가듯.

(중략)

주인의 뒤를 따라 석양에 보도 위를 걸어가는 어린 염소의 검은 모습은 슬프다. 짧은 다리에 뒤통거리는, 굽이 높아 전족한 청녀*의 쫓기는 종종걸음이다. 조그만 몸집이 달달거리 추위 타는 어린애 모습이다. 이상스럽게도 위로 들린 짧은 꼬리 밑에 감추지 못한 연하고 검푸른 향문이 가엾다. 수염이라기에는 너무나 양정한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리고 게다가 이따금씩 어린애 목소리로 우는 **그 울음**, 조물주는 동물을 점지할 때, 이런 슬픈 우형도 만들어 놓았던 것이다.

페이터는 일찍이 사람들에게 “무한한 물상 가운데 네가 향수한 부분이 어떻게 작고, 무한한 시간 가운데 네게 허여된 시간이 어떻게 짧고, **운명** 앞에 네 존재가 어떻게 미소(微小)한 것인가를 생각하라. 그리고 기꺼이 운명의 직녀, 클로우드우의 베틀에 몸을 맡기고, 여신이 너를 실 삼아 어떤 베를 짜든 마음을 쓰지 말라.” 했다. 이 염소는 충실한 페이터의 사도다. 그리고 그는 또 “네 **생명이 속절없고**, 너의 **직무**, 너의 **경영**이 허무하다 할지라도, 적어도 **치열한** 불길이 열과 빛으로 변화시키듯 하잘것없는 속사(俗事)나마 그것을 네 ㉠**본성**에 맞도록 동화시키기까지는 머물러 있으라.” 했다. **염소**가 그 주인의 뒤를 충충히 따르듯, 그리고 주인이 저를 흥정하고 있는 동안은 주인 옆에 온순하게 충실히 기다리고 서 있듯, 그리고 길가에 버려 있는 무청 시래기 옆에 세워 두면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그리고 다시 끌고 가면 먹던 것을 놓고 충충히 따라가듯.

이 세 마리의 어린 염소는 오늘 저녁에 다 같이 돌아가다가, **내일 아침**에 다시 나오게 될 것인가, 혹은 그중의 한 마리는 술 속으로 들어가고, 두 마리만이 가게 될 것인가, 또는 어느 것이 팔려가다가 팔려서 껌질을 벗기고, 어느 것이 남아서 외롭게 황혼의 거리를 타달거리고 갈 것인가, 그것은 아무도 모른다. 염소 자신도, 끌고 가는 주인도, 아무도 모른다. 염소를 끌고 팔려 다니는 **저 주인**은 또 지금 자기가 **걸어가는 그 길**은 알고 있는 것인가. 나는 이런 생각을 하며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오는 것**이다.

- 윤오영, 「염소」 -

* 전족한 청녀 : 발을 작게 하려고 발가락을 감은 청나라 여인

34.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역설과 반어를 활용하여 주제 의식을 나타내고 있다.
- ② 동일한 색채어를 반복하여 대상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의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부각하고 있다.
- ④ 명령형 문장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한 화자의 거리감을 조하고 있다.
- ⑤ 계절의 변화를 제시하여 대상의 순차적인 변모 양상을 보여 주고 있다

35. ㉠, ㉡을 중심으로 (가), (다)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에서는 ㉠을 화자의 정서와 연결하여 ‘시름 많’음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글쓴이의 정서와 연결하여 ‘생명이 속절없’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가)에서는 ㉠을 자연물과 연결하여 ‘풍운’의 영속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자연 현상과 연결하여 ‘치열한’ 삶의 태도를 강조하고 있다.
- ③ (가)에서는 ㉠을 화자의 태도와 연결하여 ‘단심’을 지킬 것을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태도와 연결하여 ‘운명’을 따를 것을 강조하고 있다.
- ④ (가)에서는 ㉠을 시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긴 밤’의 절망감을 드러내고 있고, (다)에서는 ㉡을 공간적 배경과 연결하여 ‘길가’에서의 외로움을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에서는 ㉠을 화자의 상황과 연결하여 ‘영허 소장’의 한계를 강조하고 있고, (다)에서는 ㉡을 ‘염소’의 상황과 연결하여 ‘직무’와 ‘경영’에 대한 거부감을 강조하고 있다.

36. (가)의 ㉠ ~ ㉢에 대해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자연을 완상하는 것을 가로막는 대상이다.
- ② ㉡은 화자가 자신의 과오를 인정하도록 이끄는 기능을 한다.
- ③ ㉢은 화자가 처해 있는 비참한 모습을 나타낸다.
- ④ ㉠은 화자가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대상이다.
- ⑤ ㉢은 화자가 동병상련의 심정을 나눌 수 있는 대상이다.

37.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감흥은 중장의 화자의 만족감으로 심화된다.
- ② <제2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깨달음은 중장의 화자의 결심을 강화한다.
- ③ <제3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행위는 중장의 화자의 태도로 이어진다.
- ④ <제4수> : 초장에 드러난 화자의 의문은 중장의 화자의 회의감을 유발한다.
- ⑤ <제5수> : 중장에 드러난 화자의 판단은 중장의 화자의 자기반성의 계기로 작용한다.

38. <보기>를 바탕으로 (가),(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전란의 경험이 바탕이 된 (가)와 (나)는 부정적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이 형상화된 작품이다. (가)는 임금이 피란길에 오른 참담한 현실을 달이 구름에 가려진 상황에 비유하여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선정에 대한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그리고 (나)는 인간이 본받을 만한 속성을 지닌 대상으로 바위를 인격화함으로써 바람직한 가치 회복을 회구하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 ① (가)의 ‘긴 바람 부쳐 내어 이 구름 다 걷고자’ 한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현실을 극복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② (가)의 ‘명월 볼 날 기다리노라’ 고 한 것을 통해 임금에 대한 그리움과 임금이 선정을 베풀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③ (나)의 ‘곧게 선 저 얼굴이 고칠 적이 없’고 ‘탁연 직립하’다고 한 것을 통해 인간이 본받아야 할 바람직한 품성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가)의 ‘심술궂은 뜬구름’이 ‘가리’고 ‘떼구름 미쳐’ 난다고 한 것과 (나)의 ‘구름 깊은 골짜기’에 ‘구경거리 많’다고 한 것을 통해 전란으로 인한 참담한 현실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 ⑤ (가)의 ‘희미한 한 빛이 점점 아득하여 온다’라고 한 것과 (나)의 ‘사람이면서 이 돌만도 못하랴’라고 한 것을 통해 부정적 현실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드러냈다고 볼 수 있겠군.

39. <보기>의 ㉠ ~ ㉣와 관련하여 (다)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선생님 : 이 작품에서 작가는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며 염소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고, ㉡그 염소에게 일어날 일을 상상하며 염소의 주인에 대해 떠올린 생각을 서술하였습니다. 그리고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습니다. 이와 같은 순차적 구성은 작가가 사색의 결과를 어떻게 글로 구조화할 것인지 계획한 결과입니다.

- ① ㉠ : 염소의 ‘종종걸음’, ‘턱 밑의 귀여운 수염’, ‘그 울음’ 등을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의 모습을 묘사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② ㉡ : 염소가 ‘다투어 푸른 잎을 뜯어 먹듯’ 한다고 표현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자신을 동일시하여 존재에 대한 연민을 드러냈음을 알 수 있다.
- ③ ㉢ : 염소의 ‘내일 아침’에 대해 서술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 상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④ ㉣ : ‘저 주인’의 ‘걸어가는 그 길’에 대해 언급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 주인의 운명도 염소의 운명처럼 알 수 없는 것이라고 생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
- ⑤ ㉣ : ‘나’가 ‘염소가 지나간 그 보도 위로 걸어’온다고 한 것에서 작가가 염소와 그 주인에 대해 사색한 내용을 자신과 결부시켰음을 알 수 있다.

(가)

몰아라 어서 보자 충석정 어서 보자
충석정 종단 말을 일찍이 들었거니
바람 불면 못 보려니 몰아라 어서 보자
벽해 위의 높은 집이 저것이 충석정인가
올라 보니 후면이라 전면으로 보오리라
배 대어라 사공들아 풍량이 일지 않아
충파로 돌아 저어 충석 전면 보게 하라
배 띄워라 굽이마다 따라 저어 볼 양이면
영소전 태을궁*을 지으려고 경영턴가
돌기둥 천백 개를 육모로 깎아 내어
개개이 묶어 세워 몇 만 년이 되었던지
황량한 데 벌였으니 배 없어 못 실린가

(중략)

하우씨 도끼뿔이 용문을 뚫었으나
이 돌*을 만났으면 이같이 깎을세며
영장*이 신묘하여 코끝의 것 찍었으나
이 돌을 다듬는다고 이같이 곧을쏘냐
어떠한 도끼로 용이히 깎았으며
어떠한 승묵*으로 천연히 골랐는고
끈 없이 묶었으되 틈 없이 묶었으며
풀 없이 붙였으되 흔적 없이 붙였으니
공력을 이리 들여 무엇에 쓰려 하고
한 묶음씩 두 묶음씩 세운 듯 누인 듯
기괴히 꾸몄다가 세인의 노리게 되야
시 짓고 노래하여 기리기만 위한 것인가
통천의 충석정과 고성 of 삼일포며
간성의 청간정과 양양의 낙산사며
강릉의 경포대와 삼척의 죽서루며
울진의 망양대와 평해의 월송정은
이 이른 관동팔경 자웅을 의논 말라
천하의 두 충석은 웅당 다시 없으려니
물로는 동해수요 뵈로는 금강산과
폭포로는 구룡이오 돌로는 충석이라
장관을 다한 후의 다시금 혼자 말이
괴외기결* 하온 사람 이같은 이 있다 하면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

- 구강, 「충석곡」 -

- * 태을궁 : 옥황상제가 사는 궁궐.
- * 이 돌 : 충석정 주변의 기암괴석.
- * 영장 : 영험한 장인.
- * 승묵 : 먹통에 딸린 실줄.
- * 괴외기결 : 뺨어나게 뛰어난 인걸.

(나)

㉠청산은 에워싸고 녹수는 돌아가고

석양이 거들 때에 신월(新月)이 솟아난다

안전(眼前)에 일존주* 가지고 시름 풀자 하노라 <제1수>

내 말도 남이 마소 남의 말도 내 앓겠네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 몸이로되

어디서 망령 난 손이 잡다 회다 하나니 <제4수>

옛그제 빛은 술이 다만 세 병뿐이로다

한 병은 물에 놓고 또 한 병 뵈에 놀며

이밖에 남은 병 가지고 달에 논들 어떠리 <제6수>

- 장복겸, 「고산별곡」 -

- * 일존주 : 한 통의 술.
- * 고산 불고정 : 전북 임실에 있는 정자.

(다)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빠루*를 마시고 친구를 생각하기는 그
대의 언제나 자랑하는 털게에 청포채를 무친 맛나는 안주 탓인데
나는 정말이지 그대도 잘 아는 함경도 함흥 만세교 다리 밑에 남
이 오는 털게 맛에 헤가우손이를 치고 사는 사람입네. 하기야 또
내가 친하기로야 가재미가 빠질겅네. 회국수에 들어 일미이고 식
해에 들어 절미지. 하기야 또 버들개통구이가 좀 좋은가. 횃대 생
성 된장지짐이는 어떻고. 명태골국, 해삼탕, 도미회, 은어젓이 다
그대 자랑감이지. 그리고 한 가지 그대나 나밖에 모를 것이지만
평메리는 아래 주둥이가 길고 콩치는 위 주둥이가 길지.

이것은 크게 할 말 아니지만 산뜻한 청삿자리 위에서 전복회를
놓고 함소주 잔을 거둬하는 맛은 신선 아니면 모를 일이지. 이러
게 맥고모자를 쓰고 빠루를 마시고 전복에 해삼을 생각하면 또 생
각나는 것이 있습네. 칠팔월이면 으레이 오는 노랑 바탕에 꺼먼
등을 단 제주 배 말입네. 제주 배만 오면 그대네 물가엔 말이 많
아지지. 제주 배 아즈맹이 몸집이 절구통 같다는 등, 제주 배 아맹
인 조밥에 소금만 먹는다는 등, 제주 배 아즈맹이 언제 어느 모롱
고지 이숙한 바위 뒤에서 혼자 해삼을 따다가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등..... 참 말이 많지. 제주 배 들면 그대네 마을이 반갑고 제주 배
나면 서운하지. ㉡아이들은 제주 배를 물가를 돌아 따르고 나귀는
산등성에서 눈을 들어 따르지. 이번 칠월 그대한테로 가선 제주
배에 올라 제주 색시하고 살렵네. 내가 이렇게 맥고모자를 쓰고
빠루를 마시고 제주 색시를 생각해도 미역 내음새에 내 마음이 가
는 곳이 있습네. 조개껍질이 나이금*을 먹는 물살에 낱낱이 키가
자라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과 그대 가까이 송진
내음새 나는 집에 아내를 잃고 슬피 사는 사람 하나가 있는 것과
그리고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사년생 금이가 그대네 흥원군 흥
원면 동상리에서 난 것도 생각하는 것입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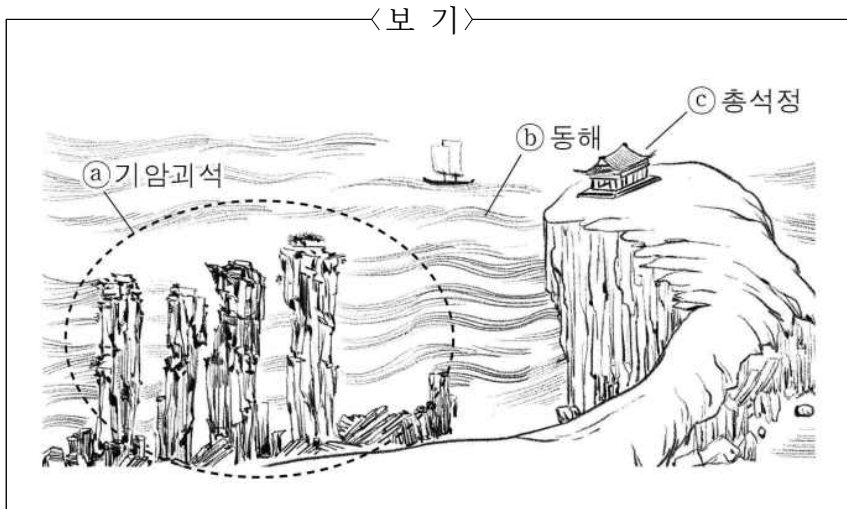
- 백석, 「동해」 -

- * 빠루 : 맥주.
- * 나이금 : 나이를 나타내는 금.

40.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와 (나)는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리듬감을 부여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직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대상에 대해 성찰하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명령적 어조를 통해 지향하는 가치를 강조하고 있다.
- ④ (가)~(다)는 모두 다른 사람을 부르는 방식으로 바라는 것을 전달하고 있다.
- ⑤ (가)~(다)는 모두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주제 의식을 부각하고 있다.

41. <보기>를 활용하여 (가)의 화자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기상 상황이 좋을 때 ㉠을 찾아가기 위해 서두르고 있군.
- ② 배를 타고 ㉡의 한 곳으로 이동해 다른 방향에서 경치를 구경하고 싶다는 심정을 드러내고 있군.
- ③ 천상의 인물과 지상의 인물이 협력하여 만든 결과물이 ㉠라고 인식하고 있군.
- ④ 뛰어난 풍경으로 인해 세상 사람들이 ㉠를 소재로 삼아 시를 창작한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⑤ 둘 중에서는 ㉠가, 물 중에서는 ㉡가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하고 있군.

42.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제1수>의 '신월'은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을 더 중시하는 삶의 자세를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② <제4수>의 '남'은 화자의 삶을 지켜보며 그에 대해 정당한 판단을 내리는 인물로 볼 수 있다.
- ③ <제6수>의 '술'은 자연과 어울리며 풍류를 즐기는 화자의 생활을 드러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④ <제1수>의 '석양'과 <제6수>의 '퇴'는 모두 학문 수양에 힘쓰도록 깨우침을 주는 존재를 상징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⑤ <제4수>의 '검다 희다 하나니'와 <제6수>의 '놀고'는 모두 미래에 대한 낙관적 전망을 보여 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3. (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황에 따라 의성어를 다채롭게 구사하여 현장감을 부각하고 있다.
- ② 연상을 통해 다양한 대상을 열거하며 공간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③ 말줄임표를 통해 과거의 연인과의 재회에 대한 회의감을 표현하고 있다.
- ④ 다른 사람의 말을 직접 인용하여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드러내고 있다.
- ⑤ 지역의 독특한 조리법들을 비교하며 그중에서 가장 좋아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44.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가 위치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② ㉡은 세상과 거리를 두려는 글쓴이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
- ③ ㉡은 아이들이 파도를 피해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④ ㉠은 농촌 생활의 즐거움을, ㉡은 어촌 생활의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 ⑤ ㉠과 ㉡은 모두 변화하는 자연의 모습에 주목하도록 하고 있다.

45. <보기>를 바탕으로 (가)~(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문학 작품에서는 특정한 장소에 대한 체험을 다룰 때 주로 풍경이나 자연물과 관련한 정서적 반응을 드러내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특정한 장소에 거주할 때 나타나는 삶의 자세나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다. (가)는 작가가 총석정 일대를 기행한 감흥을 노래하며 목민관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린 것이고, (나)는 임실에 은거하던 작가가 한가롭게 지내는 생활이나 주변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노래한 것이다. 그리고 (다)는 함흥에 체류하던 작가가 인접한 동해의 매력을 전하며 흥취를 드러낸 것이다.

- ① (가)에서 화자는 '천하의 두 총석은 응당 다시 없으려니'라며 자신이 기행한 총석정 일대의 경치에 대한 경탄을 드러내고 있군.
- ② (가)에서 화자는 '천 리를 멀다 말고 결단코 찾으리라'라며 총석정 일대의 장관과 관련지어 벼슬을 하는 사람으로서의 역할을 떠올리고 있군.
- ③ (나)에서 화자는 '시름 풀자 하노라', '고산 불고정이 좋아 늙는'이라며 불고정에서 주위 사람들과 어울리며 한가롭게 지내는 삶의 자세를 나타내고 있군.
- ④ (나)에서 화자는 '달에 논들 어떠리'라며 자신이 머무는 곳에서 바라볼 수 있는 자연물에 대한 친근감을 표현하고 있군.
- ⑤ (다)서 글쓴이는 '처녀 하나가 나를 무척 생각하는 일', '그 영어를 잘하는 총명한 사년생 금이'라며 자신이 알게 된 사람들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군.

(가)

㉠금곡(金谷)의 참룻 타 서호(西湖)의 드러오니

강산은 의구호고 풍색(風色)이 엇더호뇨

군은은 그지업서 삼순*을 놀니시니

장하(長夏) 강촌의 와실(蝸室)*이 소조*호야

사립문이 본디 업서 밤인들 다들소냐

㉡ 발이 하 성기니 물 보기 더욱 도타

소루(小樓)의 누어시니 크나큰 천지를

벼개 우히 다 볼노라 처마 하 얹으니

석양도 들거니와 빗발도 드리친다

님 그려 저즌 소매 별 아니면 뉘 말리며

우국(憂國)호야 탄 가슴을 비 아니면 어찌 살겠는가

㉢동서의 분주호여 주야를 모르더니

오늘은 어떤 날인가 이 몸이 편안커니

보리밥 몰니겨 아히야 걱정마라

짧으나 짧은 ㉣밥의 꿈자리 어즈러워

봉래산 제일봉의 어느 님을 만나보아

반기노라 홀 말 업고 늦기노라 한숨 지어

내히 설은 사설 사되나 못내 사되어

풍우성(風雨聲)의 잠 깨어 नी어 안자 한숨 짓고

㉤촌계(村砵) 벌써 우니 할 일이 전혀 업서

포금*을 추켜 덮고 위몽(危夢) 새로 드니

동산의 일출토록 호접이 되엇더니

네 밥 곳 수이 되면 이 잠을 채 잘소냐

(중략)

남산의 우혈(雨歇)커늘 먼 눈을 바라보니

관악산광*은 만고(萬古)의 한 빛이로다

㉥흰 듯 검은 것은 알겠구나 구름이로다

저 구름 지난 후면 저 뒀을 고터 볼까

울도(栗島)의 안개 걷히고 양화(楊花)의 해 지거늘

문군아 내 옷 다오 종문아 막대 다오

전나귀 채찍 없이 종무를 뒤세우고

강변의 내걸으니 만랑*이 더욱 도타

- 이호민, 「서호가」 -

* 삼순: 한 달.

* 와실: 달팽이 뚜껑 같은 작은 집.

* 소조: 호젓하고 쓸쓸함.

* 포금: 베로 만든 이불.

* 관악산광: 관악산의 경치.

* 만랑: 해 저물 무렵의 물결.

(나)

시리산 저 뒀 위에 반가울샤 상원달이

풍년 소식 띄워다가 내 창 앞에 먼져 왔다

아마도 이 ㉦밥 조흔 경치에 놀지 안코 무슴호리 <1수>

취헌 잠 늦게 깨어 강가를 바라보니

자옥이 퍼인 안개 한식 비 개엿도다

아히야 술 부어라 전촌의 취한 노래 절 일닌가* 호노라 <2수>

녹수 산정 기픈 곳에 벗 부른다 저 새소리

동풍에 깃을 떨쳐 그치는 곳이 구우*로다

내 엇지 사람으로 새만 못호여 한이로다 <4수>

발 갈아 밥을 먹고 샘을 파 물 마시니

강구연월* 어느 때인가 고잔 들 노랫 소리 아름답다 저 농부야

태평곡 화답호 제 내 근심 절로 엷다 <5수>

- 남극엽, 「애경당십이월가」 -

* 절 일닌가: 절기 때를 알리는가.

* 구우: 언덕의 모퉁이.

* 강구연월: 태평스러운 세상을 뜻함.

46. (가)와 (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문답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전환하고 있다.
- ② 연쇄의 방식을 통해 시상을 심화하고 있다.
- ③ 명령형 어미를 활용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 ④ 직유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부각하고 있다.
- ⑤ 음성 상징어를 활용하여 시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47.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화자는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며 자신의 여정을 드러내고 있다.
- ② ㉡: 화자는 자신의 계획을 통해 예상되는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 ③ ㉢: 화자는 현재와는 다른 자신의 과거에 대해 떠올리고 있다.
- ④ ㉣: 화자는 시간의 경과를 언급하며 자신의 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 화자는 자신의 시야에 들어온 대상에 대해 지각하고 있다.

48. ㉠과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은 화자의 한계가, ㉤은 화자의 능력이 부각되는 시간이다.
- ② ㉠은 화자의 의구심이, ㉤은 화자의 기대감이 심화되는 시간이다.
- ③ ㉠은 화자의 관찰력이, ㉤은 화자의 상상력이 강조되는 시간이다.
- ④ ㉠은 화자의 안도감이, ㉤은 화자의 불안감이 나타나는 시간이다.
- ⑤ ㉠은 화자의 아쉬움이, ㉤은 화자의 만족감이 드러나는 시간이다.

49.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문대부들은 시가 작품을 통해 삶의 모습과 자신이 처한 현실에 대한 인식을 드러냈다. (가)는 관료 생활을 영위한 사대부가 자연에서 소박하고 여유로운 삶을 즐기면서 자연물을 통해 연군의 정과 나라에 대한 근심을 그려 낸 작품이다. (나)는 출사하지 못한 사대부가 향촌 공동체에 어우러져 살아가며 자연에서 유유자적하는 일상과 함께 그 속의 고뇌를 자연물을 통해 그려 낸 작품이다.

- ① (가)에서 ‘사립문’이 없는 ‘강촌의 와실’에는 소박하게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② (가)에서 ‘님 그려 저즌 소매’를 ‘별’으로 말린다는 것에는 임금을 향한 사대부의 그리움이 드러나 있군.
- ③ (나)에서 ‘농부’의 ‘노랫 소리’에 ‘태평곡’으로 화답하는 것에는 향촌 공동체의 구성원과 어우러져 살아가는 사대부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군.
- ④ (가)에서 ‘풍우성’에 ‘잠 깨어’ ‘한숨 짓’는 것과 (나)에서 ‘사람으로 새만 못’해 ‘한’이라는 것에는 모두 자연물과의 대비를 통한 사대부의 내적 갈등이 드러나 있군.
- ⑤ (가)에서 ‘강변’을 걸으며 ‘만량이 더욱 도타’는 것과 (나)에서 ‘늦게’ 일어나 ‘강가를 바라보’는 것에는 모두 자연을 즐기는 사대부의 여유로운 일상이 드러나 있군.

(가)

십 년 종사 후에 고향으로 도라오니

산천 의구하되 인사(人事)는 달라졌구나

아마도 세간의 존멸을 못내 슬허 하노라 <제1수>

산화(山花)는 물의 피고 물새는 산의 운다

일신이 한가하야 산수간의 누어시니

세상의 어즈러운 괴별을 나는 몰라 하노라 <제4수>

거문고 빗기 들고 산수를 회롱하니

청풍은 건듯 불고 명월도 도라온다

하물며 유신(有信)한 갈매기는 오명 가명 하나니 <제5수>

거문고 흥진(興盡)커던 조대(釣臺)로 내려가니

도화 뜬 말근 물 뛰노나니 고기로다

아이야 밋기 다지 마라 취적(取適)*이나 하오리라 <제7수>

- 신교, 「귀산음(歸山吟)」-

* 취적 : 낚시질의 참뜻이 세상 생각을 잊고자 하는 데 있음.

(나)

백수(白首)에 산수 구경 늦은 줄 알지마는

평생 품은 뜻을 이루고야 말리라 여겨

병자년 봄에 봄옷을 새로 입고

죽장망혜(竹杖芒鞋)로 노계 깊은 골에 마침내 찾아오니

제일강산(第一江山)이 임자 없이 버려져 있네

예로부터 은사 처사 많지도 있지마는

천지가 감춌다가 나를 주려 남겼도다

(중략)

하물며 태평 시대에 버려진 몸이 할 일이 아주 없어

세간명리(世間名利)는 뜬구름 본 듯하고

아무런 욕심 없이 탈속의 마음만 품고서

이내 생애를 산수에 깃들인 채

길고 긴 봄날에 낚싯대 비껴 쥐고

침두건 배옷으로 낚시터 건너오니

산의 비 잠깐 개고 햇별이 쬔는데

맑은 바람 더디 오니 고요한 수면이 더욱 밝다

검은 돌이 다 보이니 고기 수를 세졌노라

고기도 낮이 익어 놀랄 줄 모르니

차마 어찌 낚겠는가

낚시 놓고 배회하며 물결을 굽어보니

운영천광(雲影天光)*은 어리어 잠겼는데

어약우연(魚躍于淵)*을 구름 위에서 보는구나

@하 문득 놀라 살펴보니 위아래가 뚜렷하다

한 줄기 동풍에 어찌하여 어부 피리 높이 불어오는가

적적한 강가에 반갑게도 들리는구나

지팡이 짚고 바람 쐬며 좌우를 돌아보니

누대의 맑은 경치 아마도 깨끗하구나

물도 하늘 같고 하늘도 물 같으니

푸른 물과 긴 하늘이 한 빛이 되었거든

물가에 갈매기는 오는 듯 가는 듯 그칠 줄을 모르네

- 박인로, 「노계가(蘆溪歌)」-

* 운영천광 : 구름 그림자와 하늘빛.

* 어약우연 : 물고기가 연못에서 뿜.

(다)

머지않아 숲에는 수린수린 신록(新綠)의 문이 열리리라. 그 때는 나도 숲에 들어가 한 그루 정정한 나무가 되고 싶다. 나

무들처럼 새 움을 띄우고 가지를 뻗으면서 연둣빛 물감을 풀어 내고 싶다. 가려 둔 속 뜰을 꽃처럼 열어 보이고 싶다.

허허, 이 봄날이 나를 흔들려고 하네. 귀는 항시 듣던 소리를 즐거워하고 눈은 새로운 것을 보고자 한다는 말은 그럴 법하다. 음악을 듣더라도 귀에 익은 곡만을 즐겨 듣고, 새것을 찾아 눈은 구경거리의 발길을 멈추려고 하지 않는다. 그러니 귀는 좀 보수적이고 눈은 제법 진보적인 셈.

제작년이던가 여름날에 있었던 일이다. 날씨가 화창하여 밀린 빨래를 해치웠었다. 성미가 비교적 급한 나는 빨래를 하더라도 그날로 풀을 먹여 다려야지 그렇지 않으면 찜찜해서 심기가 홀가분하지 않다. 그날도 여름 옷가지를 빨아 다리고 나서 노곤해진 몸으로 마루에 누워 쉬려던 참이었다. 팔베개를 하고 누워서 서까래 끝에 열린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가 모로 돌아누워 산봉우리에 눈을 주었다. 갑자기 산이 달리 보였다. ㉞하, 이것 봐라 하고 나는 벌떡 일어나 이번에는 가랑이 사이로 산을 내다보았다. 우리들이 어린 시절 동무들과 어울려 놀이를 하던 그런 모습으로.

그건 새로운 발견이었다. 하늘은 호수가 되고, 산은 호수에 잠긴 그림자가 되었다. 바로 보면 굴곡이 심한 산의 능선이 거꾸로 보니 훨씬 유장하게 보였다. 그리고 숲의 빛깔은 원색이 날날이 분해되어 멀고 가까움이 선명하게 드러나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랐다. 나는 하도 신기해서 일어서서 바로 보다가 다시 거꾸로 보기를 되풀이했다.

이러한 동작을 누가 지켜보고 있었다면 필시 미친 중으로 여겼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나는 새로운 사실을 캐낼 수 있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람을 대하거나 사물을 보고 인식하는 것은 틀에 박힌 고정관념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알아 버린 대상에서는 새로운 모습을 찾아내기 어렵다. 아무개 하면, 자신의 인식 속에 들어와 이미 굳어 버린 그렇고 그런 존재로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견얼마나 그릇된 오해인가. 사람이나 사물은 끝없이 형성되고 변모하는 것인데.

그러나 보는 각도를 달리함으로써 그 사람이나 사물이 지닌 새로운 면을,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다. 우리들이 시들하게 생각하는 그저 그렇고 그런 사이라 할지라도 선입견에서 벗어나 맑고 따뜻한 ‘열린 눈’으로 바라본다면 시들한 관계의 뜰에 생기가 돌 것이다. 내 눈이 열리면 그 눈으로 보는 세상도 열리는 법이다.

- 법정, 「거꾸로 보기」-

50. (가)~(나)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구체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지향하는 삶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 ② 과거의 삶을 후회하며 이상적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③ 역사적 사실을 언급하며 상황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④ 옛 성현의 말을 반복하여 목표를 이루기 위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 ⑤ 가상의 상황을 설정하여 다가올 미래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51. (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영탄적 표현을 통해 화자의 정서를 드러낸다.
- ② <제4수>에서는 대구의 방식을 활용하여 시적 상황을 표현한다.
- ③ <제5수>에서는 시적 대상에 인격을 부여하며 대상에 대한 친밀감을 드러낸다.
- ④ <제7수>에서는 말을 건네는 방식을 사용하여 상대와의 동질감을 표현한다.
- ⑤ <제7수>에서는 <제5수>에 언급된 대상을 다시 언급하며 화자의 행위가 변화했음을 드러낸다.

52. [A]~[E]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A]의 ‘평생 품은 뜻’이 의미하는 바를 [B]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② [A]의 ‘봄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는 [C]의 ‘베옷’에 대한 화자의 태도와 대조되고 있다.
- ③ [B]의 ‘산수에 깃들인 채’ 사는 삶의 양상을 [C]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④ [B]의 ‘욕심 없이’ 살아가는 화자의 모습을 [D]에서 확인할 수 있다.
- ⑤ [D]의 ‘고기 수’를 셀 정도로 맑은 자연의 이미지가 [E]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53.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자연에서의 한가로운 삶을 형상화한 사대부들의 시가를 일컬어 ‘강호시가’라고 한다. 강호시가에서의 자연은 화자에게 익숙한 곳일 수도,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일 수도 있다. 이러한 자연은 화자가 오랜 세월을 거쳐 찾아온 공간으로서,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자에게 만족감을 준다. 화자는 자연 속에서 번잡한 속세를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더불어 유유자적한 삶을 향유하는 모습을 보여 준다.

- ① (가)의 자연은 화자가 ‘고향’의 ‘산천’이 ‘의구하’다고 말하는 것으로 보아 화자에게 익숙한 곳으로 볼 수 있군.
- ② (나)의 자연은 ‘임자 없이’ 감춰져 있던 곳이라는 점에서 사람들이 쉽게 찾지 못했던 곳으로 볼 수 있군.
- ③ (가)의 ‘십 년’, (나)의 ‘백수’는 자신이 바라던 생활을 누릴 수 있는 공간을 찾기 위해 화자가 노력한 세월로 볼 수 있군.
- ④ (가)의 ‘어스러운 괴별’과 (나)의 ‘뜬구름’에서 화자가 속세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군.
- ⑤ (가)의 ‘산수간’에 누워 있는 모습과 (나)의 ‘누대의 맑은 경치’를 바라보는 모습에서 화자가 유유자적한 삶을 즐기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군.

54. ㉠와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는 하늘의 모습을 물에서 보게 된 것에 대한, ㉡는 산의 모습이 평소와 달리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② ㉠는 하늘과 물의 변함없는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는 선명하게 드러난 산의 모습을 본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③ ㉠는 하늘이 물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는 산이 주변의 모습을 닮아 변해 가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④ ㉠는 하늘과 맞닿은 물이 분리되어 보이는 것에 대한, ㉡는 산과 주변이 조화로운 모습을 보이는 것에 대한 반응이다.
- ⑤ ㉠는 하늘과 물이 뒤바뀐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는 과거와 달라진 현재 산의 모습을 보게 된 것에 대한 반응이다.

55.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무엇인가를 진심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사람은 마음을 구속하는 제약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야 한다. 지식은 새로운 것을 이해하는 데 장애가 되며, 지식을 토대로 무언가를 경험하는 순간 마음은 그것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고 이름 붙인다. 따라서 지식을 완전히 멈출 때 새로운 것을 경험할 수 있다. 미지의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지식이 개입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식에서 벗어나야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

- ① ‘팔베개를 하고 누워’ 하늘을 ‘무심히’ 바라보는 것은 지식을 멈추고 새로운 것을 경험하려는 행동으로 볼 수 있겠군.
- ② ‘사람’과 ‘사물’을 ‘일상적’으로 대하는 것은 미지의 것을 경험하는 데에 장애가 될 수 있겠군.
- ③ 어떤 대상에 대해 ‘아무개 하’는 것은 그 대상을 기존의 지식으로 해석하게 한다고 볼 수 있겠군.
- ④ ‘아름다운 비밀’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기존의 지식에 의지하지 않고 대상을 진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으로 볼 수 있겠군.
- ⑤ ‘시들한 관계’를 ‘열린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진정한 자유를 얻기 위해 필요한 자세로 볼 수 있겠군.

(가)

삼 년을 입을 떠나 해도(海島)에 유배되니

㉠내 언제 무심하여 입에게 득죄했나

입이 언제 박정(薄情)하여 날 대접 소홀히 했나

내 얼굴 고왔던지 질투하는 건 못 여자로다

유한한* 이내 몸을 음란하다 이르로세

(중략)

긴 소매 들고 앉아 옛 잘못을 헤아리니

우직하기 본성이오 망령됨도 내 죄로되

근본을 생각하면 입 위한 정성일세

일월 같은 우리 입이 거의 아니 곁어볼까

날 살리신 이 은혜를 결초(結草)하기 생각하나

광주리의 가을 부채 어느 날 다시 날꼬

황금을 못 얻으니 장문부*를 어이 사리

마름과 연(蓮)으로 옷을 짓고 부용(芙蓉)으로 치마 지어

상자 안에 두어신들 늘 위하여 단장할꼬

고향에 돌아갈 꿈 벽해(碧海)를 밟아 건너

옥루(玉樓) 높은 곳에 밤마다 입을 모셔

일당우불에 수답이 여향하니*

가까이 다가앉아 귀신을 묻던 가태부 이러한가*

멀리서 들려오는 어촌의 닭 울음에 긴 잠을 깨어나니

㉡우리 입 금옥(金玉) 같은 음성이 귓가에 의연하고

우리 입 어로향*이 옷과 소매에 품었어라

어느 날 이내 꿈을 진짜로 삼을 건가

두어라 임금께서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

- 이진유, 「속사미인곡」 -

* 유한한 : 조용하고 그윽한. 여성의 훌륭한 인품을 뜻함.

* 장문부 : 한나라 진 황후가 황제의 총애를 되찾기 위해 황금 백 근을 주고 얻었다는 글.

* 일당우불에 ~ 여향하니 : 한 방에서 서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을 나타낸 표현.

* 가까이 ~ 이러한가 : 모함을 받아 좌천되었던 가태부를 한나라 문제가 불러 밤새 가까이 마주 앉아 귀신에 대해 논했던 일을 말함.

* 어로향 : 임금의 향로에서 나는 향기.

(나)

임 그러 생각하고 푸른 요 짚고 꿈을 꾸니

외로운 영혼이 입에게 가 있더니

살뜰히 원수의 꾀꼬리로 말 못하고 깨었네 <제1수>

깨어 일어나 앉아 꿈 일을 생각하니

끊임없는 눈물이 두 볼에 진주로다

이 진주 진짜 진주와 저 임의 집에 보내고저 <제2수>

보내거든 아실까 내 정성 아실까

임도 나 같으면 일정 내 뜻 아시려니

만일에 내 뜻과 다르면 분명 대소(大笑) 하리라 <제3수>

대소 마시고 내 정성 아소서

무슨 장부로 이리도록 이러커니

얼굴은 옛 얼굴 있어도 일촌간장은 썩은 지 오래거다

<제4수>

간장이 다 썩으니 목숨이 없게 되게

㉢죽어 진토(塵土)가 되다 이 마음 썩을손가

두어라 정성이 감천하야* 지하에 가 보새이다 <제5수>

- 이복길, 「오련가」 -

* 감천하야 : 하늘을 감동하게 하여.

(다)

젊은 시절에는 과연 나도 허황된 명성을 연모하여,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잠시 예찬을 받은 적이 있지요. 그렇게 해서 얻은 ㉣명성이란 겨우 송곳 끝만 한데 쌓인 비방은 산더미 같았으니, 매양 한밤중에 스스로 반성하면 입에서 신물이 날 지경이었지요. 명성과 실정의 사이에서 스스로 깎아내리 기에도 겨를이 없거늘, 더구나 감히 다시 명성을 가까이 하겠 습니까. 그러니 명성을 위한 벼은 이미 나의 안중에서 떠나 버 린 지 오래입니다.

이른바 이익과 권세라는 것도, 일찍이 그 길에 발을 들여놓 아 보았지요. 대개 사람들은 모두 남의 것을 가져다 제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하지, 제 것을 덜어 내서 남에게 보태 주는 일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명성이란 본시 허무한 것이요 사람들이 값 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어서, 혹은 쉽게 서로 주어 버리는 수도 있지요. 하지만 실질적인 이익과 실질적인 권세에 이르면 어찌 선뜻 자기 것을 양보해서 남에게 주려 하겠습니까.

그 길로 바빠 달려가는 자들은 흔히 앞으로 얻어지고 뒤로 자빠지는 꼴을 보기 마련이니, ㉤한갓 스스로 기름을 가까이했 다가 옷만 더럽힌 셈입니다. 이 역시 이익과 손해를 따지는 비 열한 논리라 하겠지만, 실상은 분명 이와 같습니다. 또한 진작 형에게서 이런 충고를 받은 바 있어, 이익과 권세의 이 두 길 을 피한 지가 벌써 십 년이나 됩니다.

내가 명성·이익·권세를 좇는 이 세 부류의 벼들을 버리고 나서, 비로소 눈을 밝게 뜨고 이른바 참다운 벼를 찾아보았더 니, 대개 한 사람도 없습니다. 벼 사귀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 면, 벼를 사귀기란 확실히 어려운가 봅니다.

하지만 어찌 정말 과연 한 사람도 없기야 하겠습니까.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잘 깨우쳐 준다면 비록 돼지 치는 종놈이라도 진실로 나의 어진 벼이요, 의로운 일을 보고 충고해 준다면 비 록 나무하는 아이라도 역시 나의 좋은 벼일 겁니다. 이렇게 생 각하면 과연 이 세상에서 내게 벼이 부족한 것은 아니지요. 그 러나 돼지 치는 벼는 경서를 논하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기 어 렵고, 나무하는 벼는 손님과 주인이 읍양하는* 대열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니 고금을 더듬어 보면서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중략)

혹시 우리나라 안에서 한 번 만나 보아 서로 거리낌 없이 회 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리를 멀다 아니 하고 찾아가고 말겠습니까만, 형도 이런 벼를 아직 만나 본 적이 없 는 게 아닌지요? 아니면 영영 이런 생각을 가슴속에서 끊어 버 렸는지요? 지난날 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나눌 때에도 그런 이야기까지는 한 적이 없었기에, 지금 마침 한 가닥 울적한 마 음이 들어 우선 여쭙어 보는 것입니다.

- 박지원, 「답홍덕보서 제이」 -

* 읍양하는 : 예를 갖추어 공손하게 인사하는.

56. (가)~(다)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초월적 공간을 제시하여 이상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을 드러내고 있다.
- ② 현실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과거로 회귀하려는 소망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대상을 보는 여러 관점을 제시하여 대상의 특성을 입체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④ 계절감이 드러나는 소재를 제시하여 자연 풍경의 변화에 대한 감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만나고 싶은 대상을 만나기 어려운 상황을 제시하며 그에 대한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다.

57. <보기>를 참고하여 (가)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속사미인곡」은 사대부인 작가가 유배지인 추자도에서 쓴 작품이다. 작품에서 작가는 연군(戀君)의 정서를 바탕으로 자신이 겪는 시련과 그에 대한 생각을 서술하고 있는데, 작가의 간절함을 나타내고자 장면에 따라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표현하기도 한다. 특히 당쟁 속에서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된 일에 대한 억울함과 유배된 작가 자신의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못 여자’가 ‘질투하’여 ‘음란하다 이르’었다고 한 것은 작가가 반대파의 모함을 받아 유배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② ‘이내 몸을’ ‘일월 같은 우리 임이 거의 아니 굽어볼까’라고 한 것은 작가가 유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자신의 일상에 관심을 보이는 임금에 대한 감사함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옛 잘못’에 대해 ‘근본을 생각하면 임 위한 정성일세’라고 한 것은 작가가 자신의 시련이 임금을 위한 충정에서 비롯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겠군.
- ④ ‘눌 위하여 단장할꼬’라고 한 것은 작가가 지닌 연군의 마음이 임금에게 전해지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안타까움을 여성 화자의 목소리를 빌려 드러낸 것이겠군.
- ⑤ ‘행여 고치시기를 날마다 고대하노라’라고 한 것은 유배된 작가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체가 임금이라는 작가의 생각을 나타낸 것이겠군.

58. (나)의 시상 전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제1수>에서는 화자에게 일어난 일이 시간의 순서에 따라 제시된다.
- ② <제2수>의 종장에서는 초장에 제시된 상황과 관련된 화자의 정서가 드러난다.
- ③ <제3수>의 초장에서는 <제2수>의 종장에 제시된 소망이 실현될 것이라는 화자의 믿음이 드러난다.
- ④ <제4수>의 초장에서는 <제3수>의 종장에서 가정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화자의 마음이 드러난다.
- ⑤ <제5수>의 초장에서는 <제4수>의 종장에 드러난 화자의 고통이 심화되어 나타난다.

59. (가)와 (나)의 시어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가)의 ‘닭’은 (나)의 ‘피꼬리’와 달리 꿈속에서의 임과의 만남을 방해하는 존재이다.
- ② (나)의 ‘진짜 진주’에는 (가)의 ‘치마’와 달리 임에 대한 화자의 애정이 담겨 있다.
- ③ (가)와 (나)의 ‘얼굴’은 모두 화자의 처지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했음을 보여 주는 소재이다.
- ④ (가)와 (나)의 ‘꿈’에는 모두 현재 상황에서 화자가 갖는 소망이 투영되어 있다.
- ⑤ (가)의 ‘옥루’와 (나)의 ‘지하’는 죽음 이후에 임과의 재회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화자의 기대가 담겨 있는 공간이다.

60. ㉠ ~ ㉣의 표현상의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 대구적 표현을 사용하여 운율감을 조성하고 있다.
- ② ㉡ : 감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화자의 그리움을 부각하고 있다.
- ③ ㉢ : 과장법을 사용하여 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해야 하는 것에 대한 화자의 절망감을 강조하고 있다.
- ④ ㉣ : 대조법을 사용하여 자신이 과거에 추구했던 것이 초래한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⑤ ㉤ : 비유적 표현을 사용하여 특정한 가치를 좇는 사람들에 대한 글쓴이의 생각을 나타내고 있다.

61. <보기>를 바탕으로 (다)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다)는 박지원이 벼 사립을 소재로 하여 홍대용에게 쓴 서간문이다. 글쓴이는 자신의 경험과 당대 세태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바탕으로 참된 벼 사립에 대한 생각을 드러내고 있다.

- ① ‘문장을 표절하고 화려하게 꾸며서 잠시 예찬을 받은’ 경험을 ‘허황된 명성을 연모’했기 때문이라 한 것은 ‘젊은 시절’에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글쓴이의 반성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② ‘모두 남의 것을 가져다 제 것으로 만들 생각만’ 한다고 한 것은 ‘이익과 권세’를 중시하는 당대 세태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③ ‘벼 사귀는 도리를 다하고자 하면, 벼를 사귀기란 확실히 어려운데가 붙니다’라고 한 것은 글쓴이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참된 벼 사립에 관한 생각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④ ‘어찌 마음이 답답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라고 한 것은 신분 이 낮은 이들조차 자신과 참된 벼 사립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에 대한 글쓴이의 비판적 의식을 드러낸 것이겠군.
- ⑤ ‘서로 거리낌 없이 회포를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천 리를 멀다 아니 하고 찾아가’겠다고 한 것은 참된 벼 사립에 대한 글쓴이의 간절한 바람을 드러낸 것이겠군.